



[기지개 켜는 유통가]
외인 관광객 핫플
‘더현대 서울’
매출 900% ↑
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코스닥
2434.94 (+25.72)	833.51 (+5.82)
금리 (국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258 (+0.038)	1298.80 (-2.70) <28일>

‘수소 경제’ 성패 가를 암모니아 기술 선점 합종연횡

상온기체 수소, 저장·운반 어려워
현실적 대안으로 암모니아 부상

롯데케미칼-美 기업과 사업 모색
SK이노-아모지에 650억 투자 등
기업들 생태계 구축 위해 손잡아



SK이노베이션과 고려아연이 투자한 ‘아모지’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SK이노베이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 규제가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그 해법으로 ‘수소’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수소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해 ‘암모니아’ 기술에 투자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등에 따르면 오는 2050년 글로벌 수소시장은 2조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암모니아 시장은 2020년 1100만 달러에서 2030년 8억5200만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한다는 분석이다.

28일 석화업계에 따르면 암모니아는 청정수소를 적정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수소는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물질이면서도 무게 당 에너지 효율이 크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차세대 연료로 꼽힌다. 다만 수소는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하기에 에너지 밀도가 낮고, 저장과 운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널리

상용화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부피를 기준으로 따지면 1m³ 당 에너지 밀도는 3kWh로 메테인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결국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할 때 부피를 줄이는 게 관건인데 암모니아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암모니아는 수소 원자 3개와 질소 원자 1개의 화합물로 고온에서 암모니아를 ‘크래킹(분해)’하면 수소를 얻을 수 있다. 기체 상태 그대로인 수소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액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영하 253℃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반해 암모니아는 영하 33℃ 이하만 유지하면 된다. 액화 수소를 만들어서 운반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

기업들도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에 관심이 많다. 안정

적인 청정 수소·암모니아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해외 유수 기업들과 합종연횡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롯데그룹 화학군의 경우는 2030년까지 120만t 규모의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글로벌 암모니아 생산기업인 미국 CF인더스트리스와 미국 내 청정 암모니아 사업을 위해 손잡았다. 탄소포집기술(CCS)을 적용해 청정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이를 한국으로 공급해 전력 발전용, 암모니아 사용 선박에 공급하는 벙커링 등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앞서 2022년에는 롯데정밀화학이 세계 최초로 상업 생산된 청정(블루) 암모니아를 수입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빅, 마텐과 각 2만5000t의 청정 암모니아 수입 계약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는 글로벌 청정 수소·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이토추·스미토모·미쓰비시 등 일본 상사들과 인프라 네트워크를 확대해 글로벌 수소·암모니아 유통망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추가 투자를 통해 암모니아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해 투자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 아모지(Amoggy)에 5000만달러(약 654억원)를 추가 투자했다. 아모지는 2020년 11월 설립된 회사로 암모니아를 연료전지 연료로 주입해 탄소배출 없이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도 아모지에 고려아연은 3000만달러를 투자하며 암모니아 핵심 기술 투자에 참여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호주에서 생산된 액화 암모니아를 해상 운송으로 국내에 들여올 때 아모지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기업이나름대로 프로젝트와 투자를 통해 암모니아 생태계를 구축하더라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산업부는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2025년까지 가스터빈-수소 50% 혼소, 석탄-암모니아 20% 혼소 기술개발을 완료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소 100% 전소터빈과 암모니아 50% 혼소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업들은 인수기치, 배관 등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련 사업 예타면제·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 중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KT, 구현모 사임 박종욱 직무대행



구현모 KT 대표(사진)가대표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면서 박종욱 경영기획 부문장(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

게 됐다. 구 대표의 사임과 함께 일부 사외이사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KT는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표이사 사외이사 선임을 재추진해 경영안정화에 나설 방침이다.

KT는 구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일부 사외이사도 최근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와 관련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KT는 대표이사 유고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정관 및 직제규정에서 정한 편제 순서에 의거해 박종욱 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KT는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주요 경영진들로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집단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사 경영·사업 현안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경영위원회 산하에 ‘성장지속 TF(태스크포스)’과 ‘뉴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 TF’도 운영된다.

성장지속 TF에서는 고객서비스·마케팅·네트워크 등 사업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뉴 거버넌스 구축 TF는 대표이사·사외이사 선임 절차, 이사회 역할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뉴 거버넌스 구축 TF는 주주 추천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전문기관을 활용해 지배구조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사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ESG 트렌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빠르게 마련한다는 목표다.

KT 이사회는 뉴 거버넌스 구축 TF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중심이 돼 변경된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채윤정 기자 echo@

기아 ‘EV9’ 앞세워 글로벌 미래 전동화 시대 선도

플러그인 전동화 SUV 순차 출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적용
이동 개념·방식 새로운 경험 선사

“EV9은 가장 혁신적인 차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오랜기간 화자되는 차량이 될 것이다.”(기아 송호성 사장)
기아가 올해 플래그십 전기차를 출시하는 등 라인업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기아는 올해 2분기 플래그십 전기차 ‘더 기아 EV9(이하 EV9)’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유럽과 북미, 남미, 아태지역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EV9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동에 대한 개념과 방식을 바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아는 29일 ‘EV9’의 혁신성을 소개하는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영상을 기아 글로벌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기아가 이날 전 세계에



기아 EV9 & EV9 GT-line.

공개한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기아의 두 번째 모델로, 기아의 지속가능성 비전을 앞당기고 이동에 대한 개념과 방식을 완전히 바꿔 새로운 경험을 전달할 플래그십 전동화 SUV다.

기아는 EV9이 트렌드와 첨단 기술에 관심이 높으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혁신적인 공간과 주행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호성 사장은 “2021년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한 기아는 고객에게 영감을

주는 제품과 더불어 고객과의 관계에 의미를 더해줄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SUV 시장의 ‘개척자’라는 기아의 유산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준비해 온 EV9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 전동화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V9은 ▲99.8kWh 배터리와 다양한 효율 극대화 사양으로 국내 인증 기준 500km 이상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목표 ▲EV 최적화 차체 설계·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반 세계 최고

수준 안전성 확보 노력 ▲고속도로 자율주행(HDP, Highway Driving Pilot)·기아 커넥트 스토어(Kia Connect Store)·무선(OTA, 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현재로 다가온 모빌리티의 미래 기술 등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로서의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 EV9은 최고출력 150kW, 최대토크 350Nm의 후륜 모터 기반 2WD 모델과 최고출력 283kW, 최대토크 600Nm의 전·후륜 모터 기반 4WD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송 사장은 “HDP의 상용화를 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터널 등 다양한 곳에서 날씨와 시간, 정체 구역 등에서 오랜기간 반복 검증을 진행했다”며 “EV9출시로 기아가 전동화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톱티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양곡법 재논의 필요’ 건의에 “의견 존중… 숙고 후 결정” /사진 뉴시스
▲외교부 “강제동원 희석·독도 영토 주장 일 검증 교과서에 깊은 유감”

▲민주-MZ노조 “주69시간 수용 못 해… 포괄임금 폐지해야”
▲尹 “퍼주기 중단하라… 北 핵 개발 상황서 1원도 줄 수 없어”



▲김기현, 주한中대사 접견… “北 비핵화 대화에 中역할 부탁” /사진 뉴시스
▲이재명 당직개편 두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 vs “큰 의미 없어”

외국인 관광객 새 핫플 ‘더현대 서울’ 부상… 매출 900% ↑

팬데믹 3년… 달라진 상권

현대백 “중화권 등 관광객 늘어 해외패션·명품·뷰티 실적 증가”

BC카드, 명동 외국인 이용금액 2년전 대비 44배, 건수 35배 증가

명동 중소형 화장품 점포 줄고 무인사진 촬영 등 즐길거리 인기



지난 11일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먹거리를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팬데믹 3년 사이 달라진 상권이 해외 여행객들의 발자취에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3년 전과는 여행 문화와 한국의 위상, 상권 내 지형이 사뭇 변화한 만큼 유통가에서는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메트로 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주요 유통기업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기반으로 한 호실적이 속속 나오고 있다. 엔데믹을 맞고서 돌아온 해외 여행객들의 여로(旅路)는 팬데믹 이전과 달라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핫플레이스의 등장이다.

최근 한국을 찾는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현대 서울이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지난 19일까

지 약 3주간 더현대 서울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00% 늘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엔데믹과 함께 중화권을 비롯해 동남아,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패션·명품·뷰티 등의 상품군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더현대 서울은 2021년 2월 처음 문을 연 만큼 최근 외국인 여행객 사이에서 서울 여행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아이돌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와 걸그룹 ‘뉴진스’의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K팝 아이돌들의 팝업

스토어를 열어 K팝 팬들의 ‘성지’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걸그룹 ‘에스파’가 첫 단독콘서트 기념으로 운영한 팝업스토어에 이르기까지 약 6개 그룹 이상이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K팝 성지로 뜬 만큼 주로 방문하는 관광객은 K팝에 관심이 많은 미국과 일본,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 여행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인 고객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도 크게 늘었다. 올 1~2월 수도권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6배 늘어 역대 최다인 10만명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대해 서울을 비롯한 공항·항구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쇼핑 외에 문화·관광 등 콘텐츠가 풍부한 게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명동 일대와 같은 전통적인 관광 명소들도 외국인 관광객을 바탕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BC카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달 명동 지역 내에서 BC카드 가맹점 외국인 이용금액은 2년 전인 2021년 대비 44배, 이용 건수는 35배, 고객 수는 44배 늘었다.

서울 중구 소공동의 롯데백화점 본점은 1, 2월 동안 외국인 매출이 명품과 해외패션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점도 410% 늘었다.

CJ올리브영에서도 이달 명동 내 5개 매장의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배, 2019년과 대비해서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73%까지 늘었는데 동남아시아, 일본, 미국 순으로 높은 매출이 나타났다.

다만 유통업체가 전하는 외국인 여행객의 여행 스타일은 전과 다소 달라졌다. 각 상권에서 형성됐던 대표적인 여행 스타일이 팬데믹 이후 상권 지형 변

화로 조금씩 변화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예는 팬데믹 이전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서울 명동을 많이 찾았으며 구매 물품도 주로 마스크팩 등 화장품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동의 중소형 화장품 점포가 모두 철수해 관광객들의 소비지형도 변했다는 것이다. 최근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은 화장품대신 주로 무인사진 촬영 등 무인 점포 등의 새로운 즐길거리를 찾고 있으며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패션 상품 등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명동은 최근 임대료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중소형 점포보다는 글로벌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홍보를 염두에 두고 점포를 내는 추세”라며 “장기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면 과거와 같이 화장품이 다시 명동의 대표 쇼핑 상품으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이미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중심가를 채우는 만큼 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동에만 국한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을지로와 이태원, 종로 등 일대도 3년 사이 크게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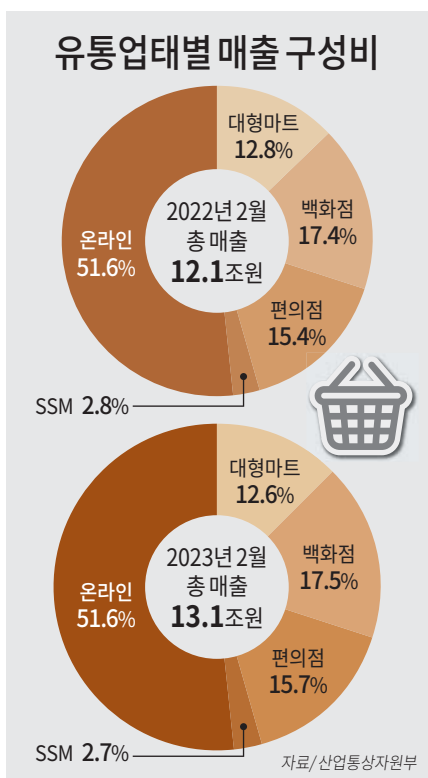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13.1조, 7.9% ↑

산업부, 온·오프라인 25개사 조사 설 앞당겨져 영업일수 증가 등 영향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7.9% 증가했다. 설 명절이 앞당겨져 영업일수가 증가했고, 작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외활동이 증가하며 패션잡화와 스포츠 용품, 해외여행 품목 판매가 전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총 13조1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월(12.1조원) 대비 7.9% 늘었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주요 온라인 12개사, 오프라인 13개사의 월간 매출액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설 명절이 전년(2월1일)보다 빠른 1월22일로 앞당겨지면서 영업일수가 증가했고, 작년 오미크론 확산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매출(6조3300억원)은 8.0%, 온라인 매출(6조



7400억원)은 7.8%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대외활동이 증가하며 의류와 스포츠 부문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모든 업태에서 매출이 성장했다. 온라인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 공연·행사 활성화 등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전체 매출이 커졌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 야외활동 증가로 서비스/기타(19.8%)·패션/의류(12.2%)·화장품(11.2%)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으나, 아동/유아(-2.7%)·가전/전자(-0.6%) 부문은 소폭 하락했다.

상품군별로 패션/잡화(13.9%), 서비스/기타(14.4%) 매출은 상승한 반면, 가전/문화(-2.3%), 생활/가정(-0.4%) 매출은 하락했다.

영업일수가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백화점(14.4%)·편의점(14.7%)을 비롯한 모든 오프라인 매장의 구매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했다. 반면, 구매단가는 물가인상 영향으로 대형마트(-0.6%)·백화점(-5.1%)·편의점(-4.0%) 등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 노동 전문가들을 만나 근로시간 개편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무관용 원칙’ 대응”

경제계 만난 이정식 고용부 장관 “개편안 현장 우려 충분히 경청 악용사례 방지 보완방안 마련”

노동계의 ‘주 69시간제’ 장시간 노동 우려 주장에 경영계는 “왜곡”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소위 ‘공짜야근’이라 불리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근로시간 관련 불법·편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노사정 모두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 노동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근로시간 개편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과 경제계와의 만남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 후 처음이다.

이 장관은 최근 청년층 MZ 세대를 만나 근로시간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도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 입장과 함께 기업 등 경영계 노력을 요청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 관행을 근절한다면 노사 모두 윈윈 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 달라”며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반발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 왜곡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두산, 127년 역사 ‘헤리티지 1896’ 개관

박정원 회장 “두산그룹 역사 넘어 대한민국 근현대 기업사 조망 공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인 두산그룹이 127년 역사를 담은 역사관 ‘두산 헤리티지 1896’을 경기 분당 두산타워에 개관했다.

두산그룹은 28일 경기도 분당 두산타워에서 박정원 회장, 박지원 부회장 등

경영진과 신입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역사관 ‘두산 헤리티지 1896’ 개관식을 열었다. 박정원 회장은 “두산만의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현대 기업사와 산업 발전사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산 헤리티지 1896은 박승직 창업주가 1896년 종로4가에서 ‘박승직상점’을

시작한 시절부터 보존돼 온 다양한 사료를 전시한다. 두산의 시조인 박승직 상점은 당시 베나 무명 같은 옷감을 주로 취급하는 포목상이었다. 포목상으로 출발한 박승직상점은 1920년대 자본금을 늘리면서 주식회사로 개편했는데, 1주당 가격은 50원이었고 1200주가 발행됐다. 역사관에는 당시 발행한 지류형태의 주식증권을 비롯해 회사 현판과 직원명부, 통장, 납세영수증 등 100여 년 전 근대기업 태동기의 사료들이 전시돼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건전 재정’ 기조 지속… 현금지원 축소 등 재량지출 10% ↓

尹정부 내년도 예산안

내년 총 지출 규모 670조 추산
반복되는 현금성 복지요구 차단
예타 등 대규모 사업 집중 관리

윤곽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은 한 마디로 재정 지출 감축, 즉,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요약된다. 내년 정부의 총 지출 규모는 6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치적 현금성 지원은 없애고, 재량 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약 10조~12조원 가량 지출 다이아트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노인과 취약계층 복지, 청년 일자리 등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이 수두룩해 정부로서는 ‘재정 완화’와 ‘재정 긴축’ 간 정교한 정책 조정이 과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기재부가 내년 예산 관련 각 부처에 요구서를 청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이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 요구안을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윤 정부 출범 후 첫 편성되는 예산안 지침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10일 출범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예산안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 상태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 정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세수 여건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적자를 더 키우지 않으면서도 국정과제를 소화하려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에서다.

실제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2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6%로 불어난다. GDP의 절반 이상이 나랏빚으로, 갚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더구나, 복지 지출, 국채이자 등 정부가 의무 지출해야 하는 비중은 지난해 49.9%에서 올해 53.3%로 늘어났다.

내년 정부가 잡은 총지출 증가율은 4.8%,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30조7000억원 증가한 669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2022~2026년 총지

20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도약하는 경제, 함께 잘사는 국민	
①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 견지 ② 경제활력 제고·구조혁신 뒷받침 + 사회적약자·취약계층 보호 강화 ③ 강력한 지출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다변화·확충	
4대 투자 중점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 수출 드라이브 추진 •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 • 신성장 4.0전략·전략기술 투자 • AI·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 K-콘텐츠·관광 등 내수활성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보호	• 약자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 • 주거·의료 등 핵심생계비 경감 • 청년·취약계층 양질 일자리 지원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고도화
경제체질 구조 혁신	•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 뒷받침 •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 지역소멸대응·지방시대 구현 • 기후위기대응·에너지시스템 전환 • 미래 혁신인재 양성
국민안전 경제안보 강화	• 글로벌 중추국가·경제안보역량 제고 • AI 기반 과학강국 육성 •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체계 구축 • 일류보훈·재외동포 지원 확대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자료: 기획재정부

/뉴시스 그래픽

출 증가율을 연평균 4.6%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이전 문 정부는 평균 8% 중반대 증가율이었다.

고강도 지출 감축을 위해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뿌리 뽑기로 했다. 선거철을 앞두고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현금성 복지 요구도 차단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합리성이 결여된 현금성 복지, 여러 정치적 일정과 연계되는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 요구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출은)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량 지출은 10% 이상 감축한다. 집

행 부진,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 지적 사업 등이 대상이다. 재량 지출은 총지출에서 의무 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 재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올해 본예산 약 640조원의 46.5%인 297조3000억원 가량이 재량 지출이다. 하지만, 국방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나 국정과제, 계속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정부 여력으로 조정 가능한 예산 규모는 대폭 쪼그라든다.

재량 지출에서 국정과제, 경직성 지출 등을 빼면 대략 100조~120조원, 이중 10%를 감축하면 10조~1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연간 100조원 이상의 국고보조금도 손본다.

80% 가량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강화한다. 20%의 민간 보조금은 부정수급, 부당 사용, 회계 투명성 결여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해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한다.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 운영비 등도 최소화한다. 사회보장급여 등 과다·중복 수급 등 복지 사업의 도덕적 해이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부처 간 유사 사업은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외 사업 등 대규모 재정 사업은 집중 관리해 총사업비 지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예타 신청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탈루 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 여건도 개선한다. 세외수입은 과태료·과징금 등 미수납 수입에 대한 체납 관리도 강화한다.

반면, 최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최 차관은 “굉장히 아껴 쓰겠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을 경기 부양 측면에서 운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평균 대출 65만원에 그쳐… 이자장사 지적도 GT 등 4개 라인업 운영… 2분기 사전계약

소액생계비대출

국가 대출상품에도 16%대 금리
50만원 이상시 자금용처 증빙 필요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가에서 진행하는 대출상품이지만 한도와 금리가 너무 높아 향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신용 취약차주들을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이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최초 15.9% 금리로 시작해 6개월 성실상환 시 3%p인 트(p)를 우대금리를 적용해 12.9%까지 내려준다. 이후 1년 상환 시에는 9.9%까지 낮추고, 금융교육 이수 시 0.5%p까지 우대받아 최저 연 9.4%의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이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상담 예약 신청이 진행됐는데, 4일간 예약 가능 인원의 98%인 2만5144명이 신청했다. 전날에는 전국 46개 서민금융진흥원 센터에 사전 예약된 1264건 중 일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한 1126건(89%)이 실제 대출로 이어졌다.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 상담·신청이 시작된 지난 27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모습. /뉴시스

문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준다는 말에 신청한 이용자들 손에는 50만원이 대부분이었다.

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단순 병원비 영수증도 안 되고 향후 100만원 가량의 병원비가 들 것이란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날 대출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6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돼 50만원 넘게 대출이 이뤄진 건은 362건, 나머지 764건은 기본대출금액 50만원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박모(56)씨는 “100만원 대출이라는 소리에 신청해서 왔는데 5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며 “병원비 영수증도 된다는 말해 가지고 왔지만 향후 병원비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대출이 ‘긴급 생계비’란 명

분이 무색하게 최초 금리가 무려 연 15.9%에 달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고금리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낮은 한도 역시 취약차주들에게 일시적인 숨통만 트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한도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이모(39)씨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생계가 어려워 대출을 받으러 왔지만 16% 이자와 한도가 너무 낮다”며 “급전을 구할 수 있어 감사하기도 하지만 50만원이란 한도가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면밀히 체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양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보완 방식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필요시 추가 재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GT 등 4개 라인업 운영… 2분기 사전계약

>> 1면 ‘기아 EV9 앞세워…’서 계속

기아가 EV9에 핸드오프 기능을 갖춘 HDP를 적용할 경우 운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픈피드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대비적인 조형이 조화 이룬 아름다운 디자인은 물론 ▲새로운 이동 경험을 선사할 공간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오토 플러시 아웃사이드 핸들 ▲디지털 사이드·디지털 센터 미러 ▲메리디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빌트인 캠 2 ▲디지털 키 2 ▲전자식 후드 래치를 적용한 프론트 트렁크 등 플래그십에 걸맞은 다양한 편의 사양도 적용됐다.

또 기아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아는 EV9을 시작으로 향후 출시할 신차에 ▲가죽 소재 사용 단계적 축소 ▲지속가능한 ‘10가지 필수 소재’ 사용 ▲자연적인 소재 개발을 위한 선행적 연구의 ‘3단계 지속가능한 디자인 전략’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기아는 생산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동물가죽 소재를 바이오 폴리우레탄(PU)으로 대체하고, 식물 기반의 재료를 첨가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기아는 앞으로도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 개발해

식물 기반 재료 사용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갈 예정이다.

또 기아는 옥수수, 사탕수수, 천연 오일과 같은 식물 기반의 소재와 업사이클링한 플라스틱 및 페트병을 원료로 한 소재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10가지 필수 소재를 향후 출시할 신차에 적용한다.

기아넥스트CMF팀 마릴리아 빌 팀장은 “자연은 영감을 주는 존재이기 이전에 인간에게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디자이너로서 자연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꾸준히 배우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기아는 ▲EV9(2WD·4WD)을 시작으로 추후 ▲GT-line 모델과 ▲고성능 버전인 GT 모델을 더해 총 4가지 라인업을 운영하고 오는 2분기 중 EV9(2WD·4WD) 구매를 희망하는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EV9과 EV9 GT-line을 전시한다.

한편 기아는 중국 전기차 시장 도전도 이어갈 방침이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 공략을 위해 기아는 올해 EV5와 EV6를 출시하고 내년에는 플래그십 전기차 SUV EV9을 출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리오프닝’ 中 경제 1% 성장하면 韓 최대 0.5%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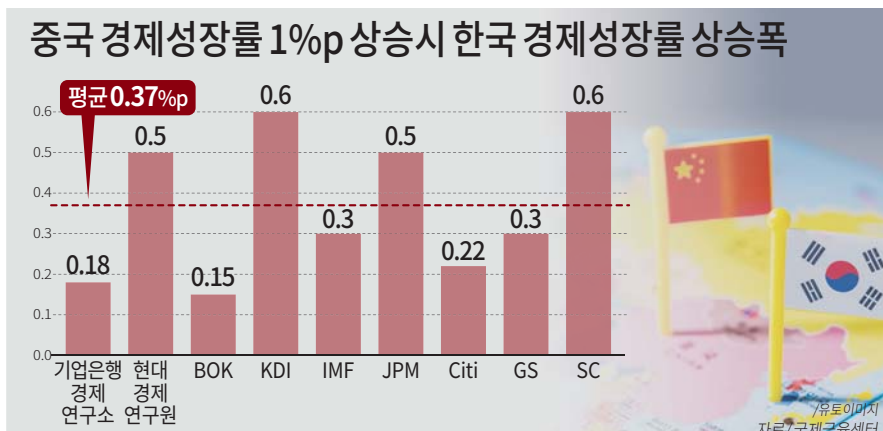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동반 개선에 대한 기대감 커져
미국경제 성장 견인력 상회 할 것
중국, 경제성장률 5.3%까지 예상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으로 우리 경제도 동반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중국경제가 1%로 성장하면 우리 경제도 최대 0.5%포인트(p)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2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기관들은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1%p 상승할 경우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우리경제 성장률은 약 0.2~0.5%p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경제의 회복이 우리의 수출과 관광 수요를 촉진시키면서 미국경제 성장의 견인력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봤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 5.3%까지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0.8%)이나 EU(0.3%)는 물론 신흥국(3.7%) 등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특히 리오프닝 이후 소비 등 내수 회복 움직임에 전망치가 작년 말 4.6%에서 상향 조정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경제의 회복이 미국과 유럽 경제의 동시 회복보다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스탠다드차타드(SC)의 경우 중국의 영향이 미국보다 5배 가량 더 큰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상품 수요와 서비스 수요가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BNP는 우리나라의 수출입과 관광, 공급망 등 중국경제와의 연관성이 여타 신흥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은 중국

의 리오프닝에 3% 안팎으로 증가하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간접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중국 수출 비율은 10%로 동남아 국가 평균(8%)보다 높다.

업종별로는 그동안 수요 감소폭이 컸던 화장품과 철강, 석유화학 등의 수혜가 크고, 반도체 등 IT 제품도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신흥국 등 제 3국가에 대한 수출도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비중은 작년 18.3%로 미국(16.1%)과 EU(10.0%)보다 높다.

요우커(중국 관광객)의 방문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촉진할 수 있는 국내 소비 규모는 약 13조~21조원에 달한다. 성장 견인 효과로 보면 수출 못지 않다.

늘어나는 요우커로 인한 GDP 상승 효과는 0.3~0.5%p로 평가됐다. 골드만 삭스는 국내 GDP 상승효과를 0.3%로

분석했지만 한국은행이 분석한 요우커 백만명당 GDP 상승효과 0.08%를 기준으로 할 경우 팬데믹 이전인 600만명 수준으로 요우커가 온다면 GDP 상승 효과는 최대 0.46%에 달할 수 있다.

다만 제약요인도 여전하다.

과거와 달리 중국에서 과급력이 큰 부동산 부문의 투자 여력이 축소됐고, 경기부진으로 누적된 재고가 소진되기까지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미중 갈등으로 대중국 수출의 약 33%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제한되면 대중 수출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손실도 불가피하다. 리오프닝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신흥경제부장은 “중국경제 재개방이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정도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중국경제 성장이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부각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i@metroseoul.co.kr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고양국제꽃박람회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평민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사고 있다.

/신화(Xinhua/Pu Xiaoxu)

수출시장 ‘청신호’ 켜졌다 소형상품 가격 9년래 최고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으로 상승
반도체, 선박 등 출하량 전년비 ↓

해외 수요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면서 중국 수출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밀러드는 주문에 소형 상품의 수출가격지수가 9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28일 차이에 따르면 이우 소형상품 수출가격 지수는 지난주 107.22로 급등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장성에 위치한 이우는 세계 도매상품의 허브로 불리는 곳이다. 이우 소상공 도매시장은 7만5000개의 상점이 약 210만 종의 상품을 거래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다.

중국 상무부가 매주 발표하는 이우 소형상품 수출가격 지수는 춘절 이후 이우 시장이 다시 문을 연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차이신은 “이우는 수출 제품이 많고, 해외 수요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향방의 바로미터로 간주된다”며 “지수 급등은 중국 수출업체들에게 반가운 신호”라고 평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매일 평균 약 800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이우의 세관을 통과했다. 2월과 비교하면 두 배나

많은 수준이다.

다만 특정 상품에 대한 계절적 수요가 지수를 끌어 올린 측면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캠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관련 제조업체의 주문량이 급증했다. 이우의 캠핑 제품 수출은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경기 확장과 위축의 경계선인 50까지 올랐다. 중국의 공식 제조업 PMI 조사에서 집계된 신규 수출 주문도 지난달 52.4까지 상승해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국의 1~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줄었다.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전월 대비 감소폭은 3.1%포인트(p) 축소됐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개선됐다. 특히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은 9% 늘어 증가폭이 전월 대비 1.5%p 확대됐다.

업종에 따라서도 아직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 수출은 강세를 유지한 반면 반도체, 선박, 섬유 등의 제품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주문이 감소했다.

/안상미 기자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누군가는 기업에서

꿈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도 합니다.

가슴 아픈 실패에 울고,

보란듯 웃으며 이겨내고

이 순간도 누군가는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한다는 건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



與野 MZ세대 공략

김기현 “1000원 학식 확대 등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경희대 방문… 학생들과 식사
당-학생회 연결 채널 구축 계획
“청년들의 정책 참여 이뤄져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 천원의 아침밥 현장을 찾아 이재백 총학생회장, 채희선 부총학생회장 등과 식사 및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MZ 세대와 함께 ‘1000원 학식’을 먹으며 소통에 나섰다. MZ 노동조합과 당 지도부 간 ‘차맥’ 회동에 이은 소통 행보다. 최근 여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 하락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과 직접 만나 애로 사항 해소 등으로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을 찾았다. 경희대가 지난 13일부터 정부와 함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나선 가운데 김 대표가 현장 상황

점검차 학생들을 만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경희대 이재백 총학생회장, 채희선 부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가 함께했다. 당에서는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

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측 인사도 함께했다.

학생들과 식사하기 전 김 대표는 “식사문제만큼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현장에서 학생들) 말씀을 들어 보려고 왔다”고 했다.

자리에 함께 한 학생들은 “다양한 학교가 1000원 학식 혜택을 누리고, 사업도 이어졌으면 한다. 아침뿐 아니라 점심, 저녁도 정부나 학교에서 관심을 주면 학생들 부담도 줄어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정부의 대학 관련 사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취업에 도움 되는 산학연계 체험 학습 필요성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는 “아침 식사 문제는 대상이나 지원금을 넓히는 방식으로 당 정책위원회에 주문하고 있다. 급식의 질을 넓히는 것도 고민해볼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의 민심, 민생의 목소리를 바로 듣는 사람들이 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게 앞으로 가야 할 생활 정치”라

며 “목소리를 직접 녹여낼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수립, 입안에 참여하는 채널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 차원에서 각 대학별 총학생회와 만나는 상시적인 채널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학생들과 식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책상에 앉아 행정 하는 것 이상으로 민심의 생생한 목소리를 녹여내 행정 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수요는 매우 창의적인 것들인데 (이들) 실천하도록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당 정책위가 정책 입안 활동 과정에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식 채널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별 총학생회와 당과 채널을 만들어 상시적인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주 4.5일제 향해 나아가야”… 청년정책 입법 힘 신는다

더불어민주당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
“尹정부 근로제 개편안 수용불가”

내주 청년정책 관련 발표 예정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69시간제 노동제’ 발표 후폭풍에 따른 반사효과를 얻으면서 청년 정책 입법에 서두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상한선을 높이자는 정책을 발표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한선을 주 60시간 근로제를 제안하며 정책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20·30대 세대들로 이뤄진 MZ노조에서 이에 대거 반발하고 나오면서 민

주당은 대여 공세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 세대의 민심이 정부에서 급격히 떠나간 이유는 주69시간 노동제 이슈가 가장 크다”면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MZ세대 노조로 구성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

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한노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주69시간까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준환 새로고침 협의회 의장은 “한국은 이제 일을 조금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

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 확대였고 고용노동부가 취지로 언급했던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짜야근은 이 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도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에 주5일제에서 주4.5일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질레가 노동시간 주당 40시간 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노동시간 감축을 통해서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

는데 우리만 역주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서 가야 한다. 주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노동시간 개악 시도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등을 포함한 청년 정책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화제가 된 반도제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은 MZ 세대가 놓은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민주당의 새로운 정책위의장으로 정해진 정책을 진두지휘할 김민석 의장은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긴급9대 민생 프로젝트’와 함께 청년 정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해 “다음주에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尹 대통령 “저출산 문제, 일회성 대책 아닌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역

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부지원과 문화적·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병행돼야 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과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

적 요소,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이고 일회성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집단심층 면접(FGI)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으로 이뤄졌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우아하고 세련된 직사각형 케이스에
담긴새로운 작품 레이몬드 웨일
토크타컬렉션을 만나보세요.



RAYMOND WEIL
GENEVE

www.raymondweil-korea.com
레이몬드웨일 부티크 청담 1544-7593

알뜰폰·배달앱에 공들이는 국민·신한銀, 데이터 확보 사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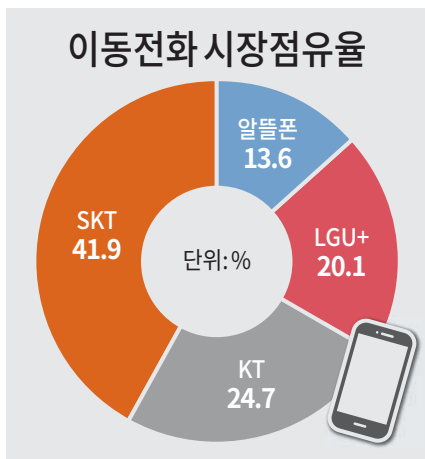
KB국민銀 알뜰폰서비스 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여부 논의
신한銀, 땡겨요 ‘부수업무’ 요청
고객정보 확보로 맞춤형 상품 제공

6조 110억원. 지난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이다. 시중은행 1, 2위를 다투는 은행이 요즘 집중하는 분야는 알뜰폰 서비스와 배달앱. 자체 데이터를 확보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석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LiivM)의 최종승인여부를 논의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서비스의 제공내용, 방식, 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 적용을 제외시켜주는 제도다.

◆규제 특례로 알뜰폰·배달앱서비스 승승장구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비



금융업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리고 출시 4년만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수는 41만 5000명으로 출시 3년만에 35만명을 넘어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위축으로 한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사람들이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며 “통신3사와 달리 유심칩을 자급제 휴대폰에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각종 부수거래 실적에 따라 통신비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이용하려는 사람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사업은 비단 KB국민은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 음식 배달앱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는 서비스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뒤 현재 신한솔(SOL)앱 내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다. 이날 기준 땡겨요의 배달앱 순위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이어 4위다. 가입자수는 165만명, 가맹점수는 6만여개에 달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수익보다 데이터 확보

은행들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이유는 자체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하며 “금융·통신 결합정보를 토대로 신용평가를 개선하겠다”며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통신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넣어야 하는 유심칩에 KB국민은행의 인증서를 포함했다. KB국민은행의 모바일 뱅킹앱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또 통신사의 경우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고객의 이동 정보, 통신비 납부내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고객의 소비패턴, 신용정보를 통해 신용정보부터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신한은행도 음식을 모바일 뱅킹앱(SOL)에서 주문하고, 주문받을 수 있게 해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자영업자의 매출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기존 시장 반발 ↑

다만 이들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수록 기존시장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알뜰폰이나 배달앱 서비스의 경우 누구나 진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특례를 허용할 경우 기존 시장

의 피해만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KB금융의 알뜰폰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60여곳이 넘는 중소 알뜰폰업체는 피해를 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원가(망 이용료) 3만원 대인 데이터 11GB의 요금제를 2만원대에 팔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배달앱서비스도 수수료가 낮더라도 다른 금융상품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삼정KPMG 관계자는 “금융생태계의 빅블러를 고려한 전방위적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금융이 비금융 사업을, 비금융이 금융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 늘수록 금융소비자보호 등 잠재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특화은행 도입 ‘시기상조’... 인뱅 건전성 관리부터”

글로벌 은행 잇단 파산·위기에
당국, 시중은행 과점 완화 ‘제도’
인뱅, 외형성장 치중... 연체율 ↑

국내 은행의 과점체제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화은행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출범 당시에도 ‘메기 역할’을 기대했지만 현재는 외형만 성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상태다. 대표적으로는 ▲소규모 특화은행(첼리저뱅크) 도입 ▲스플라이선스 ▲지방은행의 역할 확대 등이 거론됐다.

다만 글로벌 은행들의 잇따른 파산과 유동성 위기 여파로 금융당국이 추진하



고 있는 ‘시중은행 과점 완화’ 제도 마련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화은행 실행으로 미 실리온밸리는 행(SVB)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SVB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초저금리 시대에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며 국내 도입 모델로 언급돼 왔다.

지난 3일 개최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SVB 우수사례로 소개하면서 토론했다. 당시엔 SVB가 파산하기 전이다. 하지만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발생으로 파산까지 진행되면서 부실한 경영 구조를 보여줬다.

과거 인터넷은행 출범 당시에도 금융시장에서 메기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재는 급격한 외형 확장으로 연체율만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2017년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2019년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가 설립됐다. 도입 당시 혁신과 포용을 외치며 디지털 혁신 측면에서 인터넷은행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중은행 모바일 채널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또한 중저신용자(KCB 기준 하위 50%) 대출 취급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탓에 외형확장에는 성공했지만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잠재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뱅의 고정이자여신(NPL) 비율은 ▲케이뱅크 0.95% ▲카카오뱅크 0.36% ▲토스뱅크 0.53%를 기록했다.

NPL 비율은 은행의 총 여신(대출)에서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이 차지하

는 비율이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NPL 비율(0.19~0.26%)을 감안하면 인뱅의 중·저신용 대출 확대가 건전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뛰면서 차주들의 상환능력 약화가 현실화된 것이다. 금융의 메기 역할을 기대했던 인뱅의 ‘건정성 악화’로 특화은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뱅이 급격한 외형 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어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역시 수익의 대부분이 예대마진에 치우치면서 시중은행과 비슷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 이미 퇴색된 상태”며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막고 싶은 금융당국입장에선 새 특화은행보다 인터넷은행 개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지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신한은행, 주담대 이자유예·기한연장 8700억 지원

고금리 시기 선제적 금융지원
5900여명 고객 이자부담 해소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과 기한연장 프로세스를 통해 5900여명의 고객에게 약 8700억원의 금융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말 대비 0.5% 포인트(p) 이상 상승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

와 20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 중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가 유예돼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이자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고 유예기간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비용은 없다. 약 4개월간 이자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1200여명으로 대출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작년 5월 주택담보대출 기한연장 프로세스 신설을 통해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

대출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4일까지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고객은 약 4700여명, 대출금액은 약 6000억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상생금융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본점

‘창립 60주년’ 새마을금고 안정적 고객보호제로 총 자산 300조 눈앞

창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리스크 관리를 통해 60년의 역사를 넘어 100년의 미래를 다져 나가고 있다.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순이익은 1조 5575억원을 나타냈다.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284조원을 달성해 3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고객 보호제도가 경쟁력으로 꼽힌다.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이 추진될 경우 새마을금고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에게·적금 지급요구를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인 ‘상환준비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2조 4409억원이 적립돼 언제든지 예·적금 지급이 가능하다.

유동성 비율 역시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유동성비율은 112.8%로 상시적인 예금 지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출 리스크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조만간 ‘새마을금고 대출 대주단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주단협의체를 통해 금고의 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 리스크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 60년의 역사를 함께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새마을금고 100년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내연차 퇴출” EU, ‘e퓨얼’은 예외… 전동화 연착륙 기대

〈합성연료〉

EU, 2035년 내연차 금지 합의
‘e퓨얼’은 친환경 원료로 인정
전동화 직면 車업계 한숨 돌려

경제성·양산문제 등 과제 산적
친환경차 완전 대체는 어려워

e퓨얼이 친환경 원료로 인정받았다. 내연기관 생명 연장은 물론, 급격한 전동화로 비상 사태에 돌입했던 완성차 업계에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전히 고강도 규제 가능성이 남아있는데다가, 경제성과 양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더 지켜봐야한다는 조연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에 합의하면서, e퓨얼을 예외로 두기로 했다.

e퓨얼은 합성 연료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든 수소에 이산화탄소를 결합해 만든다. 가솔린과 디젤, 항공등유 등 석유 연료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기존 합성 연료와는 다르게 친환경 연료로 평가받는다. 물을 주원료로 하는데다가, 이를 분해하는데 필요한 전기도 친환경 에너지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산화탄소도 대기에서 포집해서



포르쉐가 칠레에서 운영을 시작한 e퓨얼 생산 공장

조달해야 한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그린 수소’ 생태계를 확대할 수 있고 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e퓨얼은 기존 내연 기관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는 평가다. 대용량 배터리가 높은 생산 비용과 ‘희토류’를 원료로 하는 한계, 그리고 여전히 화석 연료에 상당 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전력 생산 문제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e퓨얼을 사용하면 내연기관으로도 친환경성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자동차 산업 ‘연착륙’도 기대할 수 있다. 급격한 전동화로 일자리 축소 등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e퓨얼을 통해 충

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특히나 전동화가 불가능한 항공이나 해운 등 분야에서는 필수 과제로 인식된다. 전동화가 어려운 저개발 국가를 친환경 정책에 동참시키는 게 가능해진다.

e퓨얼은 독일 기업들이 특히 앞서 있다. 폭스바겐그룹 아우디가 2017년 연구시설을 설립했고, 자회사인 포르쉐는 칠레에 e퓨얼 생산 공장까지 운영하고 있다. BMW 올리버 집세 회장도 e퓨얼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가 e퓨얼을 생산 금지에서 예외로 두는 데에도 독일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e퓨얼에 주목하고 있다. 토

요타와 혼다, 닛산 등 3사가 함께 2020년부터 연구를 본격화한데 이어, 일본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나섰다. 그 밖에도 내연기관 공장을 운영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e퓨얼 연구는 꾸준히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e퓨얼을 상용화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현대자동차와 HD현대, SK에너지 등 기업들이 2021년 e퓨얼 연구회를 발족했으며, 기업별로도 e퓨얼 생산을 위한 투자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e퓨얼이 친환경차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연소 과정에서 다시 배출하는 방식인데다가, 수소에 이산화탄소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백금 등 고가의 자원을 사용해 생산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르쉐가 생산하는 e퓨얼 가격이 리터당 5달러 안팎,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10달러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르쉐도 내연기관이 필수적인 자사 차량 일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때문에 e퓨얼을 외면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이미 전동화를 본격화한 만큼 굳이 내연기관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EU 역시 이번 합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글로벌 정부가 e퓨얼을 어떻게 허용할지도 난제다. e퓨얼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따로 정하기 어려운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최근 EU 내연기관차 규제와 E-Fuel의 위상’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5년에서야 내연기관차의 탄소배출량 평가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다. e퓨얼 전용 내연기관차를 정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만큼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을 극히 제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퓨얼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필요하다. e퓨얼 연구회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합성 및 파라핀성 연료, 일본에서는 재생에너지 유래의 수소를 원료로 제조한 합성 연료로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 연료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이서현 연구원은 “e퓨얼은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하면서 겪어야 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면서도 “아직은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경제성이나 양산 가능성 등 문제가 남아있어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새로운 TV 왕, 환상적”… 삼성 OLED TV 전세계 극찬

美 피씨맥, 게이머들에 추천
英 테크레이더 “CES서 최고”

삼성 OLED TV도 세계적인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CNN 언더스코어드는 삼성 OLED TV를 화질과 기능면에서 최고의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에 이상적이라고 호평했다. 풍부한 색상과 짙은 검은색을 장점으로 들었다.

미국 IT 매체 피씨맥은 삼성 OLED



삼성 OLED TV S95C

TV S95C를 OLED TV의 새로운 왕이라고 극찬했다. 역대 테스트 제품 중 가

장 밝고 생생하며, 2023년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하고 144Hz 주사율과 1ms 수준 인풋랙을 소개하며 게이머들에 추천했다.

영국 테크레이더 역시 CES에서 본 TV 중 최고의 제품이라며, 직접 살펴본 결과 ‘환상적인 TV’였다고 표현했다. 다양한 밝기에서 테스트한 결과 화면 균일성도 뛰어났으며, 인피니티 윈 디자인이 놀라울 정도로 슬림하다고도 설명했다.

영국 트러스티드리뷰도 S90C와 S95

C모드 OLED 성능을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왕하이파이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TV중 가장 얇은 TV라고 호평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철기 부사장은 “2023년형 삼성 OLED TV가 전세계 주요 테크미디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스크린 경험을 위해 다양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LG전자는 디자인을 간소화하고 부담을 줄인 휘센타워 신제품을 출시한다.

LG전자 가성비 에어컨 휘센타워II 출시

LG 휘센 타워가 ‘고객’ 목소리를 들었다.

LG전자는 28일 LG 휘센타워II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휘센 타워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전면 원형 토출구를 없애 미니멀한 디자인을 극대화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거실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소비자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무드 조명과 정보를 표시하는 서클라이팅도 디지털로 구현했다.

가격 선택폭도 넓혔다. 투인원 기준으로 디럭스와 스페셜 출하가가 315만원부터 405만원까지로 책정됐다. 상반기 중으로 히트 모델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다른 2023년형 에어컨과 같이 친환경 냉매인 R32도 적용했다.

LG전자는 휘센타워II를 ‘덴탈/케어심 서비스’로도 제공한다.

/김재웅기자

사회공헌 앞장서는 LS그룹, ‘미래세대 든든한 파트너’ 자처

튀르키예 피해복구 40만 달러 기부
해외 대지진, 동해 산불피해 지원도
국내외 미래 꿈나무 위해 교육제공

LS그룹이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꾸준한 사회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S그룹은 올해 초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현금과 현물 총 40만 달러를 기부했다.

LS전선, LS일렉트릭, LSMnM, LS엠트론, E1, 예스코홀딩스 등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해 그룹 차원으로 20만 달러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후 튀르키예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LS일렉트릭과 E1이 각각 1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앞서 LS는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

진,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칠레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5년 네팔 대지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3월 동해시에 산불피해복구성금을, 2020년 코로나19 극복 성금, 2020년 집중호우복구 성금을 전달하며 국가 재난 상황에서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를 2013년 시작해 올해로 18회째 이어오고 있다. 지역 초등학생들에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과학실습 교육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안양, 울산, 청주, 동해, 구미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주요대학 공대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자가발전순전등, 태양광 및 전기 충전 자동차, 센서로 움직이는 트랙터 등 9종

의 과학키트를 직접 만든다.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 사각지대와 지역 교육 격차 심화하던 올 초에 진행한 18기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도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열었다.

LS대학생 해외봉사단도 있다. 2007년부터 베트남과 인도,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등 4개국 대학생과 LS 임직원 25명 등 1000여명으로 구성해 매년 LS드림스쿨을 신축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계열사별로도 LS일렉트릭은 ‘LS일렉트릭 꿈드림 키트 지원’과 ‘벙츠 스타트 투게더 워드 LS일렉트릭’ 캠페인, LSMnM은 ‘CU 투마로우 사이언스 캠프’, LS엠트론은 ‘해피 글로벌 봉사단’, E1은 ‘희망충전 캠페인, 예스코홀딩스는 ‘교실 숲 조성’ ‘추진 등 다양한 사회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LS드림스쿨 IT교실에서 LS메탈 정형 법인장(가운데)과 코피온 김재철 지부장(오른쪽)이 로봇 코딩 클래스 교육을 참관하고 있다.

친환경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계열사별로 LS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온드림’을 앞세운 폐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했다. 1회 사용 후 폐기하는 목재 드럼을 재활용하며 ESG 경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김재웅 기자



“AI로 코어 사업 혁신 추진… 시장 선점·기술 내재화도”

SKT 제39기 정기 주주총회

유영상 “빅테크 독식에 적극 대응”
기존 서비스 Core Biz. 경쟁력 ↑
B tv, OTT 모은 통합 포털로 진화
에이닷 제휴 캐릭터 연계 확대

오혜연 AI 전문가 사외이사 선임
경영진 주식매수선택권 안건 승인

SK텔레콤이 AI(인공지능)컴퍼니로의 진화에 속도를 낸다. 전(全) 사업 영역에 AI를 접목하고 3대 혁신 전략을 통해 올해부터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8일 을지로 사옥 T타워에서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AI를 바탕으로 실제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유 대표는 “최근 챗GPT를 필두로 AI 순풍이 강하게 불면서 어떤 산업이든 AI를 필수로 접목해야 하는 데 모두 동의하는 세상이 됐다”며 “특히 초거대 생



유영상 SKT 사장이 28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올해 AI 컴퍼니로 도약을 선언하고 있다. /SKT

성형 AI모델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참전하면서 빅테크 독식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게 위해 SK텔레콤은 적극적으로 AI 시대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유 대표는 “올해는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코어(핵심) 사업을 AI로 혁신시키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AI서비스를 통한 고객 경험 혁신, 오픈AI 등 글로벌 유수 회사들과의 제

휴하는 한편, 자체 기술 개발을 병행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내재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SKT는 이를 위해 AI 기술을 통해 유무선통신과 미디어, 구독 사업 등 기존 핵심 서비스인 Core Biz.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SKT는 고객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 소개인화 기반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미디어는 B tv를 다양한 OTT를 한 데 모은 통합 포털로 진화시키고 콘텐츠와 커머스 등에 AI를 접목할 예정이다.

에이닷을 필두로 한 AI 서비스로 고객과 기술의 거리를 좁히며 고객과의 관계도 혁신한다.

에이닷은 올해 기억과 이미지 기반의 대화 기능을 강화하고 제휴 캐릭터와 연계 콘텐츠 확대를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해 이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유 대표는 최근 새롭게 선보인 5G 중

간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요금제 다양화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요금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요금제 출시가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SKT는 이날 주총에서 ▲2022년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2022년 연결 재무제표는 전년 대비 각각 3.3%, 16.2% 성장한 연간 매출 17조3050억원, 영업이익 1조 6121억원이다. 주당 배당금은 연간 33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분할 전인 2020년 대비 66% 상향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오혜연 카이스트 교수를 신규 선임했다. 오 교수는 자연어 처리 기반 AI 전문가로 평가된다.

SKT는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 및 중장기 관점에서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진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카카오, 코GPT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AI 버티컬 서비스에 활용

카카오톡 커뮤니케이션 질적 성장
SM 인수로 IT·IP 결합 시너지 계획

카카오가 상반기 중 한국형 챗GPT인 ‘코(Ko)GPT’ 업그레이드 버전과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버티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홍은택 대표(사진)는 28일 제주 카카오펀에서 열린 주주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코GPT는 현재 3.0 단계로 상반기 안에 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코GPT를 3.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카카오브레인이 보유한 코GPT를 활용하면 날카로운 버티컬 AI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 경



쟁력에도 집중해 AI 버티컬 서비스를 연내 빠르게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올해 카카오의 가장 핵심적인 미션은 커뮤니케이션을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며 “채팅 탭으로 묶여 있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더 세분화해 대화 대상과 관계에 맞춰진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챗GPT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는 채팅 인터페이스”라며 “카카오가 유저와 접점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상반기 내에 오픈채팅 채팅탭을 별도로 분리해 탭으로 신설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재미를 담을 수 있는 채팅방부터 기업이 대규모로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는 오픈채팅까지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SM 인수에 대해 홍 대표는 “SM엔터가 보유한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제작 시스템과 카카오와 카카오펀터인먼트가 보유한 IT 기술과 IP 밸류체인의 비즈니스 역량을 토대로, 음악 IP의 확장을 넘어 IT와 IP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속하게 인수를 마무리한 이후 카카오, 카카오펀터, SM엔터 간 사업 협력을 구체화해 투자자 분들께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BMW코리아 뉴 XM 국내 출시

뉴 XM은 1978년 M1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M 전용 모델이다. SAV로 활용성도 극대화한데다가, 하이 퍼포먼스 라인업 처음으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적용해 친환경성까지 더했다. 파워트레인인 M 트윈파워 터보 기술을 적용한 V8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더했다. 배터리 용량이 29.5kWh로 62km를 주행 가능하다. 완속으로 4시간이면 가득 충전할 수 있다. 복합 연비는 10km/L다. 외관은 BMW 키드니 그릴에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 등 날렵한 디자인으로 고성능을 부각한다. 최대 23인치 휠을 장착할 수 있다. M1 검은색 스트립을 연상케하는 금색 액센트 밴드도 포인트다. 실내는 M 전용 라운지를 재현해냈다.

/BMW코리아

“안정이나 변화냐” 게임사 주총 돌입… 대표이사 재선임 주목

넥슨게임즈·크래프톤 등 재선임
대부분 이사보수 한도 동결

게임업계 주요 게임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주총은 대표이사들의 재선임이 주목된 가운데 게임사들이 ‘안정’과 ‘변화’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넥슨을 시작으로 엔씨소프트·넷마블·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데브시스터즈 등 주요게임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번 정기총회는 최대 관심사는 대표이사 재선임이다.

지난 24일 주주총회를 실시한 넥슨게임즈의 경우 박용현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크래프톤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김

창한 대표와 장병규 사내 이사회 의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재선임 안건 동의율은 김창한 대표는 98.5%, 장병규 의장은 97.07%로 전해졌다.

같은날 NHN은 정우진 대표를 재선임했다. 정 대표는 1975년생으로 2014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 취임, 2019년 사명을 NHN으로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회사의 수장직을 맡아왔다.

오는 29일에는 넷마블이 권영식·도기욱 각자 대표가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그간 넷마블은 방준혁 의장이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하지만 이번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집행임원제를 폐지하면서 앞서 두 대표의 책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컴투스는 송재준 대표가 대표직

에서 물러난다. 이주환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송대표는 4월부터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이동하면서 글로벌 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31일 위메이드도 주주총회에서는 장현국 대표의 연임건을 논의한다. 장 대표는 선제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해 위믹스 성장을 이끈 주역이다. 장대표는 주총 이후 주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한편 올해 주총에서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이사보수 한도를 동결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넷마블은 이사보수 한도를 80억 원으로, 크래프톤은 100억, 카카오펀터는 80억, 위메이드는 150억, 엔씨소프트는 200억, 컴투스는 80억 원으로 유지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CJ올리브네트웍스 ‘API 플렉스’ 출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챗봇 활용

CJ올리브네트웍스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데이터, API, 솔루션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API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API 플렉스(PLEX)’를 본격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API플렉스는 지난해 10월 베타 버전으로 오픈하며 CPaaS(클라우드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시장 공략에 나선 이후 30여개의 파트너십 확대, 서비스 모델 다각화 등 API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확장을 이루며 업계 주목을 받았다.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란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

격이다.

기업은 서비스운영과 개발에 필요한 정보들을 API 형태로 호출 받아 간단히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AI 마켓’은 최근 폭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ChatGPT’와 이를 활용한 AI 챗봇 서비스 알리GPT를 포함하여 물류 최적화, 버추얼 휴먼, 오디오 및 비디오 소스 분리 솔루션, HR 데이터 기반 퇴직 예측 모델 솔루션, AI 문서 이해 솔루션등 AI 관련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공공데이터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정보, 아파트 전월세 정보, 전국 병원 및 약국 정보, 미세먼지 경보발령 등 고객에게 필요한 실생활 정보를 서비스 API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운동기반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실적부진’ 중소형증권사, CEO 교체… 위기를 기회로

**다올투자 이병철·황준호 대표체제
한화투자 새 수장으로 한두희 선출
IBK투자 주총서 서정학 대표 선임
DB금융투자 신규 대표에 광복석
토스증권 김승연 대표이사 선임**

지난해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었던 중소형증권사들이 주총에서 잇따라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도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 등으로 증권사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경영진 교체를 통해 위기국면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올투자·토스·한화투자·DB금융·IBK투자증권 등이 대표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24일 주총을 통해 전략부문대표를 역임했던 황준호 다올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기존 이병철(회장)·이창근에서 이병철·황준호 각자대표체제로 변경했다. 지난해 부동산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난을 겪었던 다올투자증권은 이번 대표 교체로 분위기 쇄신에 나

섰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2일 한두희 한화자산운용 대표를 새 수장으로 선임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 438억원에 47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적자로 전환했다.

이같은 실적 부진에 한화투자증권은 트레이딩 본부장을 거쳐 한화자산운용 대표 취임 첫 해 영업수익을 달성한 한

두희 대표를 다시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한 대표가 한화투자증권의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서정학 IBK저축은행 대표를 오는 29일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지난해 IBK투자증권의 순이익은 2021년 대비 53.26% 줄어든 471억원에 그쳤다. IBK기업은행 계열 내부에서 글로벌금융과 투자금융(IB)의 전문가로 꼽힌 서정학 대표가 IBK투자증권의 수익 다각화를 달성하는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DB금융투자도 같은 날 열리는 주총에서 광복석 DB금융투자 부사장을 신규 대표로 선임할 예정이다. IB 부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광 부사장이 향후 IB 영업 확대에 집중하면서 수익원 다각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스증권은 30일 주주총회에서 김승연 틱톡 동남아시아 비즈니스솔루션 GM(제너럴매니저)을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악화로 투자자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증권사 실적 전망은 밝지 않다. 따라서 중소형 증권사들은 안정보다는 변화를 꾀하며 경영진 교체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증권업계관계자는 “올해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증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증권사 실적 전망 또한 어두운 상황”이라며 “증권사들은 수장 교체 등 변화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1년새 시총 절반 ‘뚝’… 비상장주 ‘한파’

**금투협 운영 K-OTC 시총 49% 감소
비바리퍼블리카, 고점대비 ¼ 수준
야놀자·컬리·현대오일뱅크 등 고전**

올 들어 증시가 의외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K-OTC의 경우 시가총액은 최근 1년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의 여파로 모험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보수적 접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8일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울거래비상장’에 따르면 해당플랫폼에서 기업가치 2위인 인기 비상장주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11월 24일 16만 9800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서는 지난 달 중 5만원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현재는 3만원대 후반에 거래가 이어지면서 고점 대비 4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그동안 모았던 비

상장주중에서 연초 가격마저도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이 다수다. 야놀자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4만 1500원에 거래됐으며, 1월에는 5만원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시 하락세가 보이며 이날 주가는 지난해말 거래가격과 동일한 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불어 컬리는 이날 장중 2만 2000원에 거래되면서 연초 대비 28.80% 하락했으며, 현대오일뱅크도 연초 4만 7500원에서 7.37% 내린 4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다른 비상장 주식거래소 ‘증권플러스비상장’에서도 인기 비상장 종목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 인기 거래 종목 1위인 두나무는 지난해 말 11만 5000원에 거래됐으나, 이날 6.96% 내린 10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불어 빙셀 운영사인 빙셀코리아 역시 같은 기간 13.76% 하락한 9만 4000원에서 거래 중이다. 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주수가 연초 대비

8.39%, 22.60% 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K-OTC에서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K-OTC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3월말 31조 3144억원에 달했지만,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49.09% 감소했다.

비상장 시장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에서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수경 KB증권 연구원은 “투자 호황기 대비 감소한 신규 투자 유치금액뿐 아니라 투자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역시 비상장사에게 힘든 환경을 조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는 정책금융 자금 공급계획을 추가 보완하고, 혁신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모험자본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며 “정책자금을 통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DL이앤씨

GTX-A 등 호재… 미래형 전원 주거단지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분양
총 800세대… 저층도 일조권 우수**

DL이앤씨가 경기도 화성시 신동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동, 총 800세대 규모다. 전용면적 99㎡ 706세대, 115㎡ 94세대로 구성된다. 단지는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계획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신주거문화타운에 위치한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에 조성되는 특별 계획구역 7곳 중 마지막 남은 주거지구다. 한국적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미래형 전원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동탄2신도시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인덕원~동탄선, 트램 등 굵직한 교통망 호재로 수도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 내에서도 공원과 녹지 면적이 넓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전 세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가 적용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거 쾌적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중저밀도 설계로 단지 내 쾌적성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200% 미만의 용적률과 20% 미만의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공간 간격을 크게 넓혔다. 이를 통해 저층 세대도 우수한 일조권을 누릴 수 있다. 세대당 주차 대수도 1.79대에 달해 넉넉한 주차 공간도 확보했다. /김대환 기자

분양가 상승률, 서울보다 지방이 더 가팔라

**작년 12월 3.3㎡당 아파트 분양가
전국 평균 29% 상승, 서울은 13%
제주 70%, 울산 77% 등 가장 높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가팔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들이 많아 지방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60~85㎡의 기준 3.3㎡당 분양가는

1533만 5000원으로 지난 2020년 1월 분양가(1188만 9000원) 대비 29.0%(344만 6000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은 2684만 5000원에서 3035만 6000원으로 13.1%(351만 1000원) 오르면서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았다. 광주와 대구 14.7%, 경기와 경남도 각각 16.8%, 16.2% 상승하면서 분양가 상승폭은 10%대에 머물렀다.

경북(21.6%), 인천(23.0%), 전북(27.3%), 전남(27.5%), 충남(29.5%), 대전(29.7%)은 분양가 상승폭이 20%대를 기록하면서 평균 상승률에 근접했다. 특히, 충북(38.8%), 강원(42.4%), 부산(51.5%), 제주(69.9%), 울산(77.1%)의 경우가 파르

올라 지방 분양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도시나 택지구, 투기과열지구가 많아서 상승률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1년에 2번 산정하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 걸쳐 올렸다. 이달에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 만에 2.05% 올린 1㎡당 194만 3000원으로 조정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항목으로 건설자재값과 노무비 등을 반영한다. 기본형 건축비의 상승은 전반적인 건설원가 상승을 의미한다. /김대환 기자 kdh@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순자산 1000억

신한자산운용, 상장 4개월 성과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배당다우존스’의 순자산이 상장 4개월만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식형 월배당 ETF로는 처음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연초 이후 S&P 500 대비 비중이 높은 금융, 필수소비재 등의 부진으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매수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장기 적립식 투자 관점에서 투자자는 단기적인 하락 흐름을 매수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연초 이후 해당 ETF의 순자산이 약 800억원이 증가했으며,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이 최근 일주일간 140억원에 달하며 연금계좌를 포함하면 200억원 이상 유입됐다. /이영석 기자

‘나만의 맛집’ 찾는 2030세대… 전통시장서 답 찾은 유통업

독특한 감성 즐기는 MZ와 맛당아
긴 시간 인정받은 맛집 HMR 출시
현대그린푸드 ‘모두의 맛집’ 모집

전통시장이 젊은이들의 최첨단 유행
행렬에 들어왔다.

유통업계가 서울 연남동, 이태원 등 ‘핫플레이스’에서 유명한 가게들을 끌어오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전통시장에서 긴 시간 인정 받은 ‘진짜 맛집’을 발굴을 이어가고 있는 것. ‘나만 아는 맛집’ 등 희소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2030세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다.

28일 <메트로 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다양한 유통가 채널들이 전통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에는 전에 없던 옛된 얼굴의 행인들이 가득했다. 경동시장 건물 3~4층을 개조해 문을 연 LG전자의 금성전파사와 스타벅스 경동1960점을 찾은 이들이다.

특히 스타벅스 경동1960점의 경우, 기존 스타벅스의 세련된 인테리어와 달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최근 경동시장은 레트로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통하고 있다. /뉴스1

리 옛날 오래 된 극장의 인테리어를 살려 마치 50년 전 풍격 속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먼 곳에서까지 찾아오는 이들로 이곳은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룬다.

인근 건어물 가게 사장 A씨는 “스타벅스가 온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며 “상품을 사는 이들이 는 만큼 매출도 늘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유통가에서 전통시장에 주목하는 데

에는 최근 ‘레트로’가 인기를 끌면서 전통시장이 주는 독특한 감성을 즐기는 2030세대가 크게 늘어난 데 있다. 이들 세대는 성장 과정에서 이미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접한 세대로, 전통시장과는 가장 먼 세대로 꼽힌다. ‘나만 아는 특별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새로운 분위기와 감성을 즐기는 이들은 전통시장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2030세대가 주목하면서 시장 상권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서울 동대문구 광장시장과 을지로 야시장은 다양한 맛집과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유명해진 후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직접 점포를 열지 않더라도 유통기업들은 전통시장 상점에 발걸음에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맛을 인정받은 맛집과 협업해 HMR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 내부에 점포가 있지 않더라도 ‘어떤 전통시장 맛집의 상품’이라고 하면 고객들이 특히 더 주목한다”며 “유통기업은 결국 새롭고 독특한 상품을 개발해 고객에게 내놓아야 주목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은 그런 점에서 편리한 창구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듯, 현대그린푸드는 다음달 19일까지 서울시와 함께 전통시장 성장 지원 프로젝트인 ‘모두의 맛집-전통시장’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각 구청을 통해 접수

받는다. 서울 시내 각 전통시장에서 영업중인 음식점은 물론,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메뉴가 참여 대상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 맛집의 브랜드화를 이끌어내 고객 접점과 판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상생·동반성장 표본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적된 전문 노하우를 전통시장 맛집에 제공해 이름을 떨칠 수 있게 돕기도 한다. 쿠팡은 부산 부평시장에 위치한 ‘부산대원어묵’에 셀러 매니지먼트팀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부산대원어묵은 한국 최초의 어묵 공장이 세워졌던 부산 중구에서 10년째 어묵과 유부주머니를 판매하며 경쟁에서 살아남은 곳이지만, 상품 구성에서 최신 트렌드와 다소 차이가 났고 온라인 판매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이홍중 부산대원어묵 대표는 “상품 개발이 필요할 때 쿠팡 셀러 매니지먼트 팀과 의논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쿠팡 전용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美 진출 최우선… 원자재 공급 안정 필요”

중견련, 수출 전망·애로조사

‘수출 확대’ 43% ‘악화 전망’ 26%
환율 변동·물류 비용↑ 등 리스크
해소 위해 수출국 다변화 등 절실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가장 큰 수출 리스크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꼽았다. 최우선적으로 수출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미국이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선 원자재 공급 안정화와 수출국 다변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수출 중견기업 450곳(응답 39곳)을 대상으로 ‘2023년 수출 전망 및 애로조

사’를 실시해 28일 내놓은 결과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견기업의 74%는 올해 수출 실적이 ‘지나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43%는 ‘다소 확대’, 31%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6개월째 마이너스(-) 상황에서도 공급망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과 비교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중견기업은 26%에 그쳤다.

올해 가장 큰 수출 리스크로는 71.4%가 ‘세계 경기 둔화’를 꼽아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에 ▲환율 변동성 확대(8.6%) ▲물류 비용 상승(5.7%) ▲보호무역주의 확산(5.7%) 순이었다.

또 중견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9%는 수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지원 사업 활용’(20.4%)은 2순위였다. 이외에도 제품 다각화 및 신제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수출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은 미국이 23%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유럽(18%), 아프리카(10%), 베트남(10%) 순이었다.

기업들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이 50%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중국(18%), 유럽(6%), 중동(6%), 베트남(6%) 등이었다. 또 응답기업의 절반은 1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고, 15%는 6~9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출 중견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는 ‘물류비·원자재값 변동에 따른 비용 상승(61%)’이었다. ‘수출 대상국 수입 규제(12%)’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중앙회, 하남시와 ‘K-스타월드’ 조성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스타월드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왼쪽 4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현재 하남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SKT, A-STAR 개발… 전국 기지국 적용

무선 네트워크 품질 관리 AI 솔루션
품질 분석 소요 시간 80.7% 절감

SK텔레콤은 무선 네트워크 품질 관리 AI 솔루션인 A-STAR(Access-Infra Service for Targeting & Action Recommendation)를 개발해 자사 전국 기지국에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SKT가 개발한 A-STAR는 전국 약 수십만개 기지국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고객 체감 품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지국을 찾아 현장 운용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법을 추천해 주는 솔루션이다.

A-STAR는 ▲전국 기지국 장비의 품질 데이터를 매시간 분석해 이상 현상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무선 품질 감시’ ▲장비 별 평균 250종 내의 품질 데이터를 분석해 저하의 핵심 원인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품질 저하 원인 분석’ ▲품질 저하 상황의 Data와 과거 품질 개선 조치 내용을 비교 학습하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적절한 개선 방법을 추천하는 ‘개선 방안 추천’의 기능으

로 구성돼 있다.

SKT는 A-STAR를 활용함으로써 무선 네트워크 품질 저하에 더욱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기지국 장비 이상이 고객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2022년 A-STAR 활용을 통한 현장 품질 개선 활동을 기존 방식과 비교한 결과, 품질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80.7% 절감됐고 현장의 기지국 선제적 개선 조치는 약 46.7% 향상됐다고 전했다. A-STAR는 SKT 및 SK오앤에스의 네트워크 현장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추진한 결과다.

SKT는 현재 매 시간 진행되는 A-STAR의 품질 분석 주기를 단축하고, 현장 개선 활동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최적 이동 경로 추천 기능을 확장하는 등 A-STAR를 고도화 할 예정이다.

박명순 SKT 인프라DT담당은 “SKT는 AI 기술을 고객 품질 관리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네트워크 운영 지능화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중기부 ‘도전 K-스타트업’ 참가자 모집

최종 20팀 선정, 대상 ‘최대 3억’

총 상금 15억원, 대상 최대 3억원을
놓고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K-스타트업 2023’ 예선리그 중 하나인 혁신창업 일반리그 참가자를 29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 대통령상과 최대 3억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도전! K-스타트업 2023’은 중기부 등 11개 정부 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범부처 협업 창업경진대회로 올해 예선리그는 지난해에 비해 연구자리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추가해 총 11

개 예선리그를 운영한다.

예선리그는 부처별로 열고 리그별 우승팀을 선발해 최종 수상자 20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창업 일반리그’는 중기부가 주관하는 예선리그로 지난해 11월에 열린 ‘도전! K-스타트업 2022’ 왕중왕전에서 최종수상한 20개팀 중 7개팀이 혁신창업 일반리그 출신일 정도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리그로 손꼽힌다.

도전! K-스타트업 2023의 다른 10개 예선리그는 해당 분야의 (예비)창업자만 지원이 가능한 반면, 혁신창업 일반리그는 분야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LGU+

‘우리가게패키지’ 앱 챗GPT 서비스 탑재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픈AI의 AI 챗봇 서비스 ‘챗GPT’가 소상공인 특화 ‘우리가게패키지’ 전용 앱에 탑재됐다.

LG유플러스는 소상공인 특화 상품 패키지인 ‘우리가게패키지’의 전용 앱에 ‘챗GPT’ 베타 서비스를 탑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고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챗봇 기능인 ‘챗GPT에게 물어보기’를 선보였다. /채윤정 기자 echo@

‘전기차 충전’ 더 간편해진다

올 충전기 6.2만대 확대·보급

아파트 주민대표 직접 신청 가능
‘불편민원 신고센터’ 새로 운영
‘앱카드지갑’으로 편의성 높여

28일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완속 충전기 6만대, 급속충전기 2000대를 확대, 보급한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자대표도 전기차 공용 충전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누적 신청건수는 1만대를 넘어섰다.

완속충전기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수요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급속은 지역 특성, 전기차 보급 등과 연계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관련 직접 신청한 건 수가 지난 23일 기준 누적 1만 361대로 집계됐다.

그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 사업자를 선정해 직접 신청이 가능해졌다.

직접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360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81대, 인천 846대, 대구 696대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이 약 절반을 차지했다.

충전 용량별로 보면 7kW급 9408대, 과금형 콘센트 423대, 11kW급 382대, 30kW급 103대 순으로 7kW급이 90% 이상이었다. 30kW급 중속 충전기의 경우 마트, 영화관, 체육시설 등에서 2~3시간 가량 머무르면서 충전을 희망하는 곳이 많아 올해부터 새로 지원을 시작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 중이다.

올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내 ‘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새로 운영해 충전 사업자가 신속하게 충전기를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충전 시 필요한 회원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앱카드지갑’도 개발 중이다. 충전 사업 자별로 각각 발급하는 회원카드는 1장만 있어도 모든 충전 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도 확대된다.

사용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충전기의 ‘고장, 이용 중, 이용가능, 예약상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 적재적소에 충전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충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농산물 유통, DX로 年 2.6조 비용 줄인다

(디지털 전환)

aT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계획
온라인 거래 규모 2배 성장

농산물 유통·물류 혁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하고, 산지 비대면 거래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의 유통비용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 및 2023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온라인 거래 규모는 빠르게 성장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쇼핑 농축산물 거래액은 7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5조8000억원 대비 22%, 팬데믹 직전인 2019년 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두배(92%) 성장한 수준이다.

이같은 유통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

춰 지난해 aT는 농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스마트 APC 표준 모델, 도매유통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유통주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산지조직과 도매법인 등 온라인경매를 적극 지원해 2022년 거래액은 전년 대비 약 95% 성장한 650억원을 달성했다. 식재료 조달 분야에서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사용처를 학교·군부대·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한 결과 거래 규모 3조4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aT는 한발 더 나아가 농식품부가 올해 1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등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스마트 APC 정보지원시스템’(가칭)을 구축해 APC 내부 업무와 농산물 거래 디지털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지 온라인경매도 활성화해 유

통구조 효율화와 농가소득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연내 개 설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해 통합플랫폼 구축, 이용주체 유지, 운영 규정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 예정인 전자송품장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주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스마트 스튜디오를 운영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채널 확보를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유통교육원에서는 농식품 유통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준진 aT 사장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은 복잡한 다단계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산지조직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확대에 효과가 있다”며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에 집중해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휠라 요가매트서 독성 유해물질 검출

국내 시판중인 휠라 요가매트에서 단쇄염화파라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독성이 강해 세계적으로 저감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에선 명확한 정의나 관리 기준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8일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대상으로 선정된 요가매트는 가네샤 요가 프랩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엘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 휠라(브랜드명 가나다 순) 제품이다.

시험 평가 결과 이 가운데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모델명: FILA PIPING WIDE NBR 15mm Yoga Mat)’ 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이 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만3050.5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 등 POPs는 독성이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인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글로벌 허브공항 성장

오늘 개항 22주년 기념식

인천공항이 올해로 개항 22주년을 맞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오후 3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 홀에서 ‘인천공항 개항 22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현재까지 그간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인천공항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 50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1992년 11월 착공식 이후 8년 4개월의 건설 기간을 거쳐 2001년 3월 29일 개항하며, 오늘날 성공적인 국제사업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 기준 인천공항의 취항 항공

사는 88개, 취항도시는 52개 국 173개 도시에 달한다. 국제여객은 세계 5위(2019), 국제화물물은 세계 2위(2021)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개항 22년만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성장했다.

또한 국제공항협회(ACI) 주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ACI가 새롭게 도입한 ‘고객경험인증제’에서 세계 공항 중 최초로 5단계 인증을 획득하며 ‘5성급 공항’으로 등극했다.

공사는 이와 같은 우수한 공항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15개 국 32개 해외사업을 수주(7억 5200만불 규모)했으며, 전 세계 150개국 1만여 명의 항공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항공교육과정을 제공 중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

박일준 “빠를 꺾는 자구노력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

한전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 참석
올해 효율개선 사업 1088억원 투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경영혁신자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빠른 꺾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28일 서울 중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남부발전, 에너지공단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높을 전망”이라며 “지난해 한전 영업이익자가 30조원을 넘어서고,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원에 육박하는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공기관이 에너지 공급에 흔들림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비용 지원이 문제 해결의 답이 될 수 없다”면서 “고효율 기기·설비 보급, 적극적인 효율·절약 관리, 국민 모두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만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공공기관이 사회 공헌활동, 상생협력활동 등을 통해 효

율 개선과 전 국민 1키로와트시(kWh) 줄이기와 같은 에너지 절약 실천과 생활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소상공인이나 농업가, 뿌리기업 등 에너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취약한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알려진 일부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의 외유성 출장과 관련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기강 준수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중점 추진 경영혁신 과제와 범국민적 효율·절약 운동 선도 사업들을 점검했다.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5조3000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초과달성한데 이어 올해 6조 5038억원(한전과 발전5사 3조3000억원, 가스공사 2조 7000억원, 지역난방공사 5038억원)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아울러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과 절약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 사회공헌활동 및 대중소상생협력자금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에 총 10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등 에너지 효율기기·설비지원’(868억원), ‘단열공사, 창호교체 등 건축물 효율개선 지원’(143억원), ‘캐시백 등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및 홍보’(77억원)를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DAVID HOCKNEY

& BRITISH POP ART



1960s Swinging London

데이비드 호크니 & 브리티시 팝아트

2023. 3. 23 ~
2023. 7. 2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철우 “APEC 정상회의, 최적의 요건 갖춘 ‘경주’에서”

〈경북도지사〉

한덕수 총리 만나 협조 요청
‘비전 2040’ 포용적 성장 실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현안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에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갔다.

이철우 지사는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최적의 도시임을 자부하며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차원에서 경주에 2025 APEC 정상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경쟁도시보다 선제적으로 건의했다.

경주는 현재 유치 경쟁도시 중 유일한 중소 기초자치단체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방 균형발전 실현과 관광·경제 활성화에 안성맞춤이며, APEC이 채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건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는 최적의 개최지이다.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2012), 제7차 세계물포럼(2015),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2020) 등 최근 10년간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과 원전세일즈 최적의 도시로 산업발전 중심지인 포항(철강), 구미(전자·반도체), 울산(자동차·조선)이 인접해 있어 개발국 정상과 각국 영부인을 위한 일정 추진이 용이하고, 1~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김해공항, 대구공항, KTX역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간 개최된 APEC 정상회의의 중소 규모 도시인 멕시코(로스카보스, 2002), 러시아(블라디보스톡, 2012), 베트남(다낭, 2017) 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보면 경주 유치의 당위성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21개국 정상과 함께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무역·투자 증진 방안 등을 지방에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건의와 더불어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석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포항 이차전지 양극소재 특화단지 지정 등도 정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정에 힘써 줄 것을 아울러 청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고흥군

‘창조적마을 만들기’ 준공식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월 28일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양 읍치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주민 복지·교육 서비스 공간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 공동체 활력 도모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및 교육 공간이 마련돼 이를 기반으로 풍양면민의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영양군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 실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3월 28일 청기면 상청2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종합민원 서비스’를 실시했다.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는 2010년 3월 영양읍 무장리에서 최초 시행 이후 매년 3~4회 정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2년 만에 재개했다.

초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40.2%(‘23년 2월 말 기준)에 달하는 지역특성상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서비스와 ‘만성질환 관리 및 상담’, 자원봉사센터의 ‘이불세탁’ 서비스는 매우 인기가 높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안동시, ‘노지 디지털농업’ 선도주자 각광 받아 ‘들썩’

국내 최초 시범사업 통해 구축
지자체·기관에서 견학방문 요청

4차산업 혁명과 더불어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북 안동시의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이 노지 디지털농업 선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초로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생산단지와 데이터관제센터에 대해 여러 지자체와 기관 등에서 노지 디지털농업 분야 견학 방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농업 선진 시스템과 AI 의사결정시스템이 도입된 미래과원과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저장·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농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제센터에 대한 방문이 줄을 잇고 있으며, 월 평균 10개 내외의 기관에서 안동시를 방문하고 있다.

시는 2022년까지 3년간 총 245억원 규모의 안동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통해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일원과 수원 61.5ha에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이 시범사업의 관리와 데이터 기반 농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은 스마트생산단지에 구축된 환경센서와 모니터링 장치 등 다양한 수집장비를 활용하여 기상, 토양, 생육, 병해충 정보 등 영농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그 결과값을 61개 사업 참여 농가에 제공한다.

농가에는 관수·관비 자동 제어, 병해충 예찰 및 발생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기기만을 활용하여 영농정보 활용 및 제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농업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지난 2월 열린 이차전지 혁신 산업생태계 구축 및 인재 양성 업무 협약식.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 굳힌다

10년간 8배 이상 대폭 성장 전망

포항시가 국내 최고 수준의 차별화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와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대규모 이차전지 기업을 집적시켜 대한민국 최고 이차전지 선도도시이자 특화단지 최적의 도시로 자리를 굳혀나가고 있다.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앞으로 10년간 초고속 성장해 2020년 461억 달러(한화 약 58조 7000억 원)에서 2030년 3517억 달러 규모(한화 약 449조 1000억 원)로 10년간 8배 이상 대폭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핵심 소재 공급망 확보와 중국 의존도 탈피가 각

국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포항은 포스텍, 가속기연구소,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연구인프라와 함께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글로벌 이차전지 선도기업 집적으로 원료부터 전구체, 양·음극재 등 핵심 소재 양산까지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포항 지정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이차전지 경쟁력 확보로 글로벌 배터리 강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라고 말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광주,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박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환경부가 공모한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에 ‘광주광역시 E-V투어 문화관광 트렌드 조성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과제로 참여했다.

총사업비 58억원(국고보조 20억원, 민간투자 38억원) 규모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월드컵경기장, 우치공원, 공영주차장 등 79곳에 226기의 초고속·급속·완속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전기충전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랜드사업은 광주시가 충전기 설치장소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는 자부담으로 지정 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한다. 설치규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광주시는 별도의 투자없이 부족한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

공모 선정으로 광주시는 민간투자와 국비유치로 부족한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산청군, 취약지역 개선에 40억 확보

산청군이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28일 산청군에 따르면 차황면 양촌마을과 생비량면 상능마을이 정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돼 4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로써 산청군은 2019년 오부면 오전지구 개선사업(23억원), 2020년 생초면 노은마을과 생비량면 방화마을(40억원), 2021년 산청읍 척치마을과 단성면 구사마을(35억원), 지난해 산청읍 내정마을(18억원)에 이어 5년 연

속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차황면 양촌마을과 생비량면 상능마을은 전체 주택 중 70%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협소하고 경사가 심한 골목길로 인해 화재나 응급상황대응이 어려운 취약지역이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내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40억원을 투입해 차황면 양촌마을과 생비량면 상능마을 생활여건 개선에 돌입한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함양군

이주정착 ‘함양살자’ 대상자 모집

함양군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청년 지역살이 및 이주정착 프로젝트 ‘함양살자’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함양살자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함양군에 머물도록 지원하여 함양에 정착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사업으로 ‘지역살이’와 ‘이주정착’ 등 2개 사업으로 나뉜다.

함양의 특색있는 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판매, 전시·체험공간조성, 청년 카페 운영 등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하동군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사업

하동군은 경남도가 주관한 ‘2023년도 소규모 스마트팜조성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2억 2500만원을 포함해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보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팜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옥종면 일원에 7200㎡(약 2200평)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신축(9연동)과 ICT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팜 온실에서는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제공해 수확시기와 수확량 예측뿐만 아니라 품질과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잇단 가격인상·경기 불황에... ‘명품’ 중고거래시장 활황

샤넬, 작년 총 4차례 가격인상에
중고가 20% 올라도 거래 15% ↑

구구스, 샤넬 판매개수 9% 늘어
트렌비, 중고 거래액 400% 성장

명품 브랜드의 잇따른 가격인상 단행과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명품 중고 거래가 크게 활성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의 가격 인상 후에는 명품 소비 심리가 다소 줄어들지만 최근 몇 개 브랜드는 인상 주기가 무척 짧아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하는 것 또한 가능해 중고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명품 거래 전문기업 구구스는 28일 이달 명품 브랜드 샤넬의 중고 판매가격이 전월 대비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거래량은 15% 더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샤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달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은 주요 인기 제품의 가격을 최대 6%가량 인상했다. 매년 3~4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샤넬은 지난해 1월, 3월, 8월, 11월 총 4차례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뉴시스

이달 가격을 인상한 샤넬은 지난해 1월, 3월, 8월, 11월 총 네 차례 가격을 인

상한 바 있다.

구구스에 따르면 명품 브랜드의 가격

인상과 중고 명품 시장의 거래량 및 매출은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샤넬이 가격을 인상하자 구구스에서 샤넬이 판매된 개수는 직전 월 대비 약 9% 늘어났고 판매액은 약 7% 증가했다. 올해 3월은 2월 대비 판매 개수는 15% 이상, 판매액은 2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 개수는 45%, 판매액은 44%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트렌비 또한 지난 2월 중고 명품 상품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0% 성장했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브랜드는 샤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루이비통과 구찌가 그 다음으로 거래가 되었다. 샤넬은 명품 브랜드 가운데에도 가장 각이 가장 적게 되는 상품으로 꼽히는데, 최근 가격인상이 계속 되면서 중고 시장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최근 3개월 거래 성장률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발렌티노(200% 성장), 디올(176%), 보테가베네타(175%)로 나타났다.

트렌비 측도 중고시장의 성장세를 “명품 브랜드들의 줄지은 가격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명품 소비심리가 위축됐지만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오히려 중고 시장은 성장하게 되는 트렌드가 명품 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렌비는 약 1조 규모인 한국에서의 중고 명품 시장이 5년내에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중고 명품 시장이 아직 태동기인 부분에서 점유율이 7%에 불과하지만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 미국과 유럽은 약 25~30%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쿠팡, 리테일 각자대표 체제 ‘로켓배송 강화’

리테일 최고경영진에 윤혜영·이병희
체제 전환으로 전문성·책임경영 강화

쿠팡은 28일 윤혜영 대표와 이병희 대표를 리테일 사업부 최고 경영진으로 발령했다.

윤혜영 대표는 홈리빙, 레저, 그로서리, 로켓프레시 등을, 이병희 대표는 가전, 미디어, 뷰티, 생활용품 등을 총괄한다. 리테일 각 부문별 각자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혜영
리테일 부문 대표

이병희
리테일 부문 대표

윤혜영 대표와 이병희 대표는 로켓배송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고객중

심 경영과 배송 혁신을 주도해온 유통 전문가다.

두 대표는 로켓배송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두 달 차이로 쿠팡에 입사해 로켓배송이 풍부한 상품 가짓수와 최저가를 확보하고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쿠팡은 이번 리테일 부문 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유통 혁신을 통한 고객가치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김서현 기자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정세영 하이트진로 상무(오른쪽)가 최태영 국립생태원 생태응용연구실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두꺼비 로드킬 방지 힘쓴다

국립생태원·순천시와 MOU 체결

하이트진로가 두꺼비 개체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정세영 하이트진로 상무, 최태영 국립생태원 생태응용연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생태원, 순천시와 함께 두꺼비 로드킬 저감 대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시민 대상 연간 2회 생태 교육 ▲생태 통로 및 도로 안전 요철 설치 ▲로드킬 저감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두꺼비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두꺼비는 생태계가 건강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환경 지표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로드킬을 당하는 두꺼비가 늘면서 매년 개체수는 줄고 있다. 특히 두꺼비 산란 시기인 3월과 5월에 두꺼비 로드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순천과 대구, 울산, 청주, 광양 등 두꺼비 서식지의 로드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시는 2023년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 두꺼비 로드킬 방지를 위한 생태통로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KT&G, 재무제표 승인 등 이사회안전 가결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주당 7867원, 주당 1만원 안건 부결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할 것”

KT&G는 28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결과, 이사회가 제안한 주총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36기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기주식 소각 ▲자기주식 취득 ▲사외이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의안이 상정됐다.

먼저 현금배당은 이사회가 제안한 주당 5000원 안건이 가결됐으며, 일부 주주가 제안한 주당 7867원, 주당 1만원은 부결됐다.

일부 주주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 평가보상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의 건과 자기주식소각 결정 권한 추가의 건 또한 모두 부결됐으며, 이사회도 찬성했던 분기배당 신설의 건은 가결됐다.

관련 정관 개정이 부결되며 자기주식

소각의 건은 자동 폐기됐다. 일부 주주가 제안한 자기주식 취득의 건도 부결됐다.

사외이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제안한 현원 6명을 유지하는 안건이 가결됐으며, 일부 주주가 제안한 사외이사를 8명으로 증원하는 건은 부결됐다.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사회가 추천한 김명철 전 신한금융지주 CFO,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재선임됐으며, 선임된 두 명의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백복인 KT&G 사장은 “회사의 미래 성장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전략을 믿고 지지해준 주주님들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KT&G 경영진과 이사회는 주주를 비롯한 고객, 임직원, 파트너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장기적 관점의 성장투자 와 기술 혁신, 공격적인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톱 티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쉽’ 누적판매량 500만개 hy, 출시 6주만의 성과

hy는 신제품 ‘스트레스케어 쉽(이하쉽)’이 출시 6주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 개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쉽은 멘탈 웰스케어 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한 hy의 전략 제품으로 2년 연구 끝에 탄생했다.

핵심은 hy 특허 프로바이오틱스 5종과 ‘테아닌(L-테아닌)’이다. 장(腸) 건강과 함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내 액상형 제품 중 해당 성분 2가지가 주원료로 함께 들어있는 제품은 쉽이 유일하다.

기존 유제품과는 차별화한 향을 제품에 적용했다. 브랜드 콘셉트에 부합하는 자체 레시피로 아로마 오일 3종(베르가못, 캐모마일, 레몬)을 배합했다. 푸른 하늘을 연상케 하는 패키지 디자인도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시네마 ‘스위트 갈릭칩 팝콘’ 론칭

롯데시네마가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한 ‘스위트 갈릭칩 팝콘’을 론칭한다고 28일 밝혔다.

‘스위트 갈릭칩 팝콘’은 K-콘텐츠를 넘어 극장계의 먹거리 혁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롯데시네마가 업계계를 불문하고 색다른 재미와 경험을 추구하는 MZ 세대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하여 야심 차게 준비한 신제품이다.

주 재료는 마늘을 활용했다. 먼저 팝콘의 맛을 좌우하는 갈릭맛의 시즈닝은 계열사 롯데제과와의 협업을 통하여 개

발했다. 기존 맛과는 다른 단맛, 짭짤, 알싸한 맛의 콜라보를 이루어 MZ 세대들의 입맛을 자극할 예정이다. 여기에 실제 갈릭칩이 별도의 토핑 형태로 패킹되어 있어 고객이 직접 뿌려 먹는 재미까지 제공하며 기호에 맞게 취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스위트 갈릭칩 팝콘’은 극장에서 먹는 팝콘의 맛을 그대로 구현하면서도 외부에서도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국내 스낵 제조업체 ‘제이앤이(J&E)’와의 협업을 통해 완제품 형태로 제작했다.

/신원선 기자

구원투수 등판 서정진, 해외시장 승부… 3사 합병도 추진

〈명예회장〉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그룹 정기주주총회

금감원 행정절차 7월 마무리될 듯
불확실성 위기 속 일시적 복귀
적극적인 M&A 추진 할 계획

“회사를 잘 운영해서 주주들이 손해 보지 않게 해야하는데, 금융시장이 워낙 어렵다보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 경영진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일 오전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 모습을 드러낸 셀트리온그룹의 창업주 서정진 명예회장의 첫 마디다. 이날 현장은 주총 시작 전부터 저조한 주가에 항의하는 주주들의 거센 항의로 소란스러웠다.

서 회장은 주총 시작 전 자리에 참석해 주주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실적 부진 및 주가 하락에 관련해 사과했다. “아직 주총 전이라 안전이 결의되지 않아 지금은 명예회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주총은 주주들끼리 다투는 자리가 아니다. 주총 전에 사과 인사를 드리러 나왔으니 주총이 원활하게 진행



셀트리온 주주총회_현장.

/셀트리온

될 수 있도록 주주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초 글로벌 시장 점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 명예회장은 “올해 글로벌 27개국을 점검하고 국가별 위탁생산 현황과 생산능력을 살펴봤다”며 “3월에 미국과 캐나다를 정비하고 왔는데, 경영에 복귀하면 경영진들에게 더욱 강력한 현장 지침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2021년 3월 경영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그룹을 둘러싼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소방수’ 역할로 다시 현장에 돌아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 회장은 기자들의 복귀 배경에 대한 질문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모든 그룹 총수가 그렇듯 회사에 위기가 닥치면 가장 경력이 많은 총수는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입을 뗐다. 이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고, 안정되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셀트리온은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사 선임의 건은 서정진 명예회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기우성 대표이사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이혁재 경영지원부문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다.

모든 안건들은 현장 출석주주 과반수, 의결권 발행주식 총수 1/4 이상을 충족해 통과됐다. 서 명예회장은 사내이사 선임 안전에 대한 표결 결과 79.67%의 찬성을 받아 2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셀트리온을 제외한 셀트리온그룹 2개사 주총이 예정대로 끝나면 서 명예회장은 2년 임기로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을 맡게 된다.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도 3년 임기로 재선임됐다.

2년만에 경영일선상에 복귀한 서 명예회장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유플라이마’와 자가면역질환 피하주사 ‘렘시마SC’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 첫 고농도 제품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한 ‘유플라이마’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오는 7월 미국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차세대 전략제품인 ‘렘시마SC’는 지난해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 제품은 유럽에선 작년 3분기 기준 14.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M&A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여러 바이오텍과 함께 차세대 의약품 개발과 기존 파이프라인의 제형 다양화를 위한 기술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의약품 트렌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M&A를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글로벌 임상, 허가 등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케미컬의약품 사업 영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합병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서 회장은 “금융감독원에 오는 7월 마지막 리포트를 제출하면 행정적 절차가 끝난다”며 “주주들이 합병을 원하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동아제약, ‘판피린큐·챔프’ 역대 최고 매출

판피린큐 418억·챔프 100억 돌파
12년 연속 약국 판매 1위 지켜내

동아제약이 감기약과 해열제 시장에서 활황 날아올랐다. 종합감기약에서는 판피린큐가, 어린이 해열제로는 챔프가 모두 약국 1위를 석권한 것이다.

28일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를 토대로 주요 감기약과 해열제 시장을 분석한 결과, 판피린큐가 418억원 매출을 올렸고, 어린이 해열제로는 챔프가 100억원 매출 돌파했다. 두 제품 모두 역대 최고 매출이다.

판피린큐 매출은 전년 287억원 대비 45.7% 가량 증가한 수치다. 액상형 감기약의 원조인 판피린큐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약으로, 액상 감기약 중 처음으로 400억원 고지를 돌파하는 기염



동아제약 종합감기약 ‘판피린큐’.

을 토했다.

판피린은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인 강신호 회장이 동아제약에 입사해 만든 첫 번째 약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최초 알약에서 주사(1966년)로 이후 시럽제(1973년)로 끊임없이 변신했고 벌써 60년 이상 판매중인 대표 감기약이다.

실적과 함께 새로운 이정표도 세워졌다. 아이큐비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피린 큐는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감기약 분야에서 약국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무려 12년 연속 약국 판매 1등인 셈이다.

어린이 해열제 시장도 동아제약이 석권했다. 챔프는 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 116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당당히 1위에 자리했다. 전년(2021년) 대비 103% 가량 성장했다. 지난해 주요 어린이 해열제 매출액이 약 210억원인데 챔프가 절반 이상을 해낸 셈이다.

챔프는 1993년 최초 발매 이후 2012년 파우치 포장 시럽으로 리뉴얼됐다. 이후 10년 이상 사랑받고 있는 어린이 전문 해열감기 브랜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이큐비아 기준으로는 해열제 부문 5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중이다. 챔프는 색소와 보존제가 없는 게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JW신약, 탈모·무좀약 론칭 심포지엄

갈더마코리아 2개 제품 국내 독점 공급

치료한다.

JW신약은 27일 조선펠리스호텔에서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알파엑’, 손발톱무좀 치료제 ‘로세릴네일라카’ 론칭 심포지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5일 JW신약이 갈더마코리아와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JW신약은 앞으로 갈더마코리아의 엘-크라넬알파엑과 로세릴네일라카의 국내 영업·마케팅을 전담한다.

국내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모발학회 허창훈 교수(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가 연자로 나서 탈모치료제 엘-크라넬알파엑에 대해 소개했다. 엘-크라넬알파엑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겐성 탈모치료제로 탈모의 원인인 디히드로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3중으로 억제해 탈모를 효과적으로

두번째 연자로 나선 김상석 교수(강동성심병원 피부과)는 “로세릴네일라카는 손발톱에 직접 도포하는 매니큐어형 외용제로 주 1~2회 사용해도 7~14일간 항진균효과가 유지된다”며 “보험급여가 가능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경감시켜줄 수 있어 손발톱무좀 환자의 퍼스트(first) 홈케어 치료제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JW신약은 엘-크라넬알파엑과 로세릴네일라카 론칭으로 피부질환 치료제 시장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관 JW신약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피부질환 전문기업인 갈더마의 제품 도입으로 JW신약의 의약품 포트폴리오가 더욱 탄탄해졌다”며 “향후 3년간 약 500억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제품군으로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도미노피자

식목일기념 굿즈
‘씨드스틱’ 제공

도미노피자가 식목일을 맞아 한정판 피자박스를 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식목일 한정판 피자박스는 지난 2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한 ‘어깨동무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으로 구성됐다.

오는 31일부터는 입상 아동들의 그림이 새겨진 씨드스틱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19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모든 피자(M/L) 방문 포장 주문 시 선착순 1만명에게 씨드스틱 굿즈를 제공한다. 씨드스틱 화분에 꽃고 물만 부어주면 집에서도 쉽게 식물을 가꿀 수 있다.

/신원선 기자

CJ푸드빌, ‘이탈리안 정통’ 봄 메뉴 출시

더플레이스, 와인 라인업도 확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비스트로 더플레이스가 봄을 맞아 이탈리아 정통성을 강화한 봄 시즌 메뉴를 오는 30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즌 메뉴는 이탈리아어로 ‘봄의 축제’를 뜻하는 ‘페스타 디 프라마베라’라는 콘셉트 아래 루꼴라, 프로슈토, 그레몰라타 드레싱 등 이탈리아 요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료를 활용했으며, 화사한 색감으로 보기만 해도 산뜻한 봄이 느껴진다.

일상적으로 와인을 즐기는 이탈리아인 다이닝 문화를 반영해 와인 라인업을 확대하고 와인과 궁합이 잘 맞는 메뉴



수제도우를 고온 화덕에서 구워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다. ‘부라타 카프레제’는 부라타 치즈, 토마토, 루꼴라에 이탈리아인 드레싱 ‘그레몰라타’를 곁들인 샐러드다.

와인과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비스트로 메뉴도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할리스, 홈트레이닝 MD ‘할리스 핏’ 선포

요가매트, 폼롤러, 마사지볼 3종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할리스가 홈트레이닝 MD인 ‘할리스 핏’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요가매트, 폼롤러, 마사지볼 3종으로 선보이며, 친환경 소재인 코르크로 제작해 몸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가치까지 담았다.

이번에 출시한 ‘할리스 핏’은 할리스가 처음 출시하는 홈트레이닝 제품이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삶의 여유와 균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지속되는 것에 주목해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나만의 홈트를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기획했다.

할리스 핏은 나무를 베지 않고 나무 껍질만을 이용하는 코르크 소재로 제작해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다. 유해 물질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해 피부에 닿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촘촘한 나무 입자 구조로 빠르게 건조되고 탈취 효과도 있어 청결한 관리가 가능하다.

요가매트, 폼롤러, 마사지볼과 전용 에코백으로 구성된 홈트세트와 요가매트 단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Enjoy Your Life



유럽제품 을 안방에서 즐기다

COCOSBAY

NAVER

코코스베이





하나금융그룹-삼성전자, 디지털 금융 활성화 나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7일 삼성전자와 '모바일 결제 및 신분증 기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증·사원증 등 모바일 신분증 기능 활성화 ▲해외 결제 시스템 구축 ▲미래형 금융 서비스 모델 협력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박성호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과 한지니 삼성전자 부사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



삼표그룹, '응봉산 개나리축제' 참여… 묘목 식재

삼표그룹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28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성동구 주최로 열린 '2023 응봉산 개나리 축제'에서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개나리 묘목을 심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삼표그룹 임직원들은 행사가 열리는 응봉산을 찾아 수령이 오래돼 개화능력이 떨어진 개나리를 새 묘목으로 교체했다. /삼표그룹



행복얼라이언스, 단양군 결식우려 아동 지원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단양군 결식우려 아동 지원을 위해 힘을 합쳤다. (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본부 장동욱 본부장, 단양군 김문근 군수,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주) 임은미 실장 /행복얼라이언스



광동제약, 쿼일스토어서 행복나눔 봉사활동 펼쳐

광동제약은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기 위해 '임직원 행복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쿼일스토어 밀알송파점'에서 진행됐다. 직원들은 물류관리와 매장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장애인 종업원들의 업무를 보조했다. /광동제약

경동나비엔

노후주택 개선사업 보일러 후원

경동나비엔이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참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추가로 나선다.

28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최근 '20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동나비엔은 올해부터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참여해 콘덴싱보일러를 후원한다. 경동나비엔의 사업 참여로 시공 주택의 에너지 효율은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그룹, 부산 BIE 현지실사 인프라 지원

〈세계박람회기구〉

부산세계엑스포유치위원회 MOU 제네시스 G80 등 12대 차량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탠다.

현대차그룹은 28일 서울 광화문 디타워에서 세계박람회기구(BIE)의 현지 실사에 대응해 엑스포 유치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BIE 실사단은 부산의 엑스포 유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5박6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 체결로 차량과 홍보 등 실사 지원에 필요한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왼쪽)과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각종 인프라를 제공한다. BIE 실사단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제네시스 G80 전동화모델 8대와 고속버스인 유니버스 4대 등 총 12대의 차량을 지원한다.

'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엑스포'라는 부산 엑스포의 주제에 맞게 전기차를 지원해 경쟁국 도시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사단이 한국의 친환경 모빌리티 산

업 경쟁력을 미리 체험하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현대차그룹은 전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차량 제공은 단순히 이동 지원 차원을 넘어 실사단이 현대차그룹의 탄소중립 기술이 담긴 전기차를 경험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부산의 세계박람회 개최 적합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될 것"이라며 "안전성이 입증된 고급 대형세단과 리무진 버스 제공으로 실사단의 이동과 업무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만큼 긍정적인 실사결과가 도출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코웨이, 첫 무분규 임단협 타결

노조 설립 이후 최단기 타결 조합원 95% 잠정합의안 찬성

코웨이가 노동조합 설립 4년 만에 처음으로 분규 없이 최단기에 임단협을 타결했다.

코웨이는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 G타워에 위치한 본사에서 코웨이 지부(설치·수리기사)와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해 10월 코웨이 지부와의 202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며 지난 1월 3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그 후 같은 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코웨이 지부 조합원 94.6% 찬성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는 지난 2019년 노조 설립 이후 첫 무분규 합의이자 4개월



(왼쪽부터)서장원 코웨이 대표와 임창경 코웨이 지부장이 지난 27일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만에 이뤄낸 최단기 타결이다.

이번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에는 서장원 코웨이 대표와 임창경 코웨이 지부장 등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가 함께 협약서에 서명했다.

노사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업무 차량 지급 ▲기본급 인상 ▲A S 업무 포인트 상향 조정 등에 합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현대차, 'TEAM HMC' 7년 연속 후원

전속 기술팀, 경비 등 지원

현대자동차가 7년 연속 아마추어 레이싱팀 'TEAM(팀) HMC(Hyundai Motor Club)'를 후원한다.

현대차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오도웨이타워에서 국내사업본부장 유원하 부사장, TEAM HMC 김주현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TEAM HMC 후원 협약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는 TEAM HMC에 전문 드라이빙 수트, 차량 관리를 위한 전속 기술팀, 경기 출전에 따른 소정의 경비를 7년 연속 지원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고객들이 모터스포츠의 매력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고 또 즐길 수 있길 바



방송인 양상국(왼쪽부터), 'TEAM HMC(Hyundai Motor Club)' 레이싱팀 김주현 단장,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유원하 부사장, 현대차 국내서비스사업부장 이태수 상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란다"며 "국내 모터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해 후원과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C&C, 청년 위한 행복IT장학금 전달

36명에 1억1300만원 지원

SK㈜ C&C는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u타워에서 IT전문가를 꿈꾸는 장애청년을 위한 '2023년 행복IT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SK㈜ C&C 김성한 ESG담당을 비롯한 회사 구성원들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올해는 대학생 32명, 대학원생 4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u타워에서 열린 '2023 행복IT장학금 전달식'에서 SK㈜ C&C 김성한 ESG담당(왼쪽 네번째), 장학생 대표 김민수 군(가명, 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명 등 총 36명의 행복IT장학생에게 총 1억 130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금호타이어 '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 운영

금호타이어가 모터스포츠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금호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젊은 레이싱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모터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엑스타 레이싱팀을 국내 최고의 명

문팀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금호 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젊은 레이싱 드라이버 유망주들이 프로선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육성 프로그램이다.

/양성운 기자

인사

-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류종영 △해양공간정책과장 김인경 △어업정책과장 김성원 △항만물류기획과장 오영록
- ◆직설 △금융증권부장 김남규 △산업유통부 유통팀장 김현민
- ◆비아트리스코리아 △대표이사 빌 슈스터
- ◆질병관리청 ◇국장급 채용 △국립목포병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박승규
-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경제사회정책부장 겸 자본시장부장 이규성

부음

- ▲최달수씨 별세, 황경희·훈·재훈·정훈씨 모친상, 표철수씨(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장모상=2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장지 경북 안동시 선영. 02-2258-5940
- ▲이권성씨 별세, 상석(서울경제TV 대표이사)·상수씨(동서 기획팀장) 부친상, 아람(경희고 교사)·용희씨(서울창도초등학교 교사) 조부상=28일 오전 3시 20분, 청주 탑오양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010-9013-4061

위니아,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5관왕

위니아가 김치냉장고 뿐 아니라 여러 가전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위니아는 브랜드스타가 발표한 2023 대한민국 브랜드스타에서 5개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브랜드스타는 산업 주

요 부문별 브랜드 가치 1위를 선정해 발표하는 브랜드 가치평가 인증 제도다.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프리미엄 냉장고 ▲전자동 세탁기 ▲전자레인지 ▲개인용 온열마사지기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됐다.

/김재용 기자 juk@

약삭빠르면 그 무너짐도 빠르다



신 세 철

쉬운 경제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트리지 않는다.(프란체스코 교황)”고 하였다.

책임이 큰 위치에 있을수록 언행이 이웃과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욕심 많은 어릿광대가 노력 없이 어찌다 분에 넘치는 자리를 차지하면 책임감보다 저 혼자 잘난 체 으스대며 조직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다가 그 자신도 어느 사이에 망가지기 쉽다.

뒤편임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우연치 않게 남다른 힘을 얻으면 마치 때무기가 풀잎 위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며 우쭐거리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쉽다. 아는 것이 쏘끔 있다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져 말장난을 일삼다보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남을 비추려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밝지 못하다”는 격이다. 자신을 위해

서 세상이 있다는 확증편향심리에 빠져들면 조직과 사회의 집이 되고 결국에는 본인도 비극을 맞이하는 경로를 밟는다. 그래서 “약삭빠르게 나아가면 그 무너짐도 빠르다(其進銳者 其退速. 맹자, 盡心章句 上 44)”고 경계하였다. 일시적 승리에 지나친 욕심을 내다가는 어느새 기운이 쇠잔해져 눈앞에 패망이 보인다는 뜻이다.

감독이 경기흐름과 선수들의 특기를 조화시키려들기보다 저만 돋보이고 저 자신을 위한 경기를 이끌려는 오만에 빠진다면 선수들이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인재”라는 평을 받던 인사의 ‘헤아리지 못할 돌출행동과 입 놀림’에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팀의 승리에 앞서 혼란스러운 언어의 유희를 남발하다보니, 오죽하면 대표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간과 쓸개까지 빼냈다.”며 기진맥진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겉볼보다 가벼운 입으로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면 관전자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한다. 어려울수록 공생의 길을 찾아야 같이 사는데 혼자서만 살려다보면 저 먼저 죽는 것이 세상 이치다.

허황된 영광에 사로잡히기보다 세월이 흐를수록 떳떳한 삶의 궤적이 뒷받침 되어

야 좋은 마무리가 가능해지는 바람직한 인생이다. 초년 입신양명에 우쭐해져 정신이 혼미해지다보면 희한에 찬 말로가 기다린다. 이른 출세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뒤편이가 따라가지 못하면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이웃과 사회에 피해를 주고 스스로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 자식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부모라면 그 귀한 자식에게 출세를 부추기기에 앞서 사람 됨됨이부터 가르치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 하찮은 인품에 탐욕에 가득 찬 심성을 가진 인사가 허명을 얻게 되면 인간다운 시각을 가지기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기’처럼 어려워진다.

음지에서 일해야 하는 무지렁이들이 따로 있다는 편견에 빠진 인사가 중책을 맡은 조직이나 사회가 어찌 온전할 수 있을까? 어릴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은 간난신고를 겪어봐야 비로소 세상이치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다는 뜻이렸다. 사람의 도리를 외면하고 힘을 쫓수록 더 크게 쭈러는 욕심을 부리다가는 이것저것 다 잃기 마련이다. 일찍 출세하면 만년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가 드물다(少年登科 不得好死)라는 경구가 생긴 까닭 아닐까?

/경제칼럼니스트

애플과 C-타입



허 정 윤

(산업부)

유럽연합(EU)이 던진 ‘USB-C’ 통일 법안이 애플의 액세서리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유럽 시장 소비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애플이 고유의 라이트닝 케이블을 포기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충전 단자를 표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정부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충전 단자를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내놔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기정통부장관이 시행령으로 전자기기 충전 단자를 USB C타입으로

표준화할 수 있다.

벌써부터 커뮤니티에서는 “다음 아이폰 C-타입 되면 이제 라이트닝 케이블 따로 안 챙겨도 되겠다”라며 반기는 사람들도 보인다. 애플은 2012년 출시한 아이폰5 시리즈부터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을 채택한 케이블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플이 자사 인증(MFi)을 받지 않은 충전장치에 속도 제한을 둘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화제다. ‘무머’로 치부하기에는 ‘애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애플의 행보가 주목된다.

‘MFi 인증’은 타 제조사가 만든 충전장치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애플이 지난 2005년 도입한 자체 인증제도다. 애플 공식 판매채널에서 구입한 제품이 아니거나, MFi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애플 기기 연결 시 ‘액

세서리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볼 수 있다.

EU가 ‘C-타입 통일’을 결정한 이유는 C타입, 8핀(라이트닝), 5핀 등 제조사마다 규격이 제각각이었던 충전기 포트를 통일시켜 불필요한 충전기 폐기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기 위함이었다. 애플이 소문처럼 MFi 인증 제품과 미인증 제품을 구별하게 되면 법안의 취지가 희석된다.

또한 애플의 MFi 인증을 받으려면 애플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애플은 이를 통해 추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아직 애플에서는 아이폰 15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바 없다. 그러나 아직은 C-타입 케이블 속도 제한은 ‘무머’다. 하지만 애플이 진정으로 환경과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속도 제한’과 같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9일 (음 2월 8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자녀에게 주려는 생각을 접고 자금계획을, 48년생 결혼은 돌이 했으니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가는 여행, 60년생 오늘이라도 미래를 위해 저금을 들자, 72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편하다, 84년생 아침부터 종일 운전 천천히,



소

37년생 돈이 없으면 불행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으니 집을 잘 지켜야, 49년생 사방이 깜깜하니 곧 새벽이 온다, 61년생 혼자서 가는 출장길, 73년생 돈을 빌리면서 주식은 하지 않도록, 85년생 오늘이 내일을 뒷받침하니 겸손으로 행동,



호랑이

38년생 나를 위해 살고 열심히 일하자, 50년생 묵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니 더 노력, 62년생 현 상황이 천국이니 환경을 바꿀 생각은 접는 것이, 74년생 동료에게 이기적인 마음을 접어보자, 86년생 실천하지 못할 계획이라도 해보자,



토끼

39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51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63년생 뱃새라 빛을 감는다, 75년생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폭주하기 마련, 87년생 어디를 가든 의심받기 쉬운 행동은 하지 말 냈는데,



용

40년생 오후에 뜻밖의 좋은 일이, 52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64년생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 시작이니 다른 이성관계는 정리해, 76년생 무난한 것이 결과를 원만히 할 터, 88년생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뱀

41년생 작은 구멍이 큰일을 만든다, 53년생 매수문서는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65년생 환심을 사서 투자하게 하려는 의도를 알아채도록, 77년생 자영업은 잘 생각해야 한다, 89년생 이별하고 나서 후회하니 기본대로 하는 언행을 조심,



말

42년생 기러기발을 붙여놓고 거문고를 타게 하니 소리가 나겠는가, 54년생 거래에 인정이 있게 해야, 66년생 권불심년생은 재물에도 마한가지로 적용, 78년생 봄의 향연에 능력이 넘쳐난다, 90년생 좋은 일이 거듭될수록 약속을 중요하게,



양

43년생 세월 앞에서 무슨 사람 타령인가, 55년생 집안 분위기를 바꾸니 무릉도원에서 대접받는 기분이다, 67년생 적당한 경쟁은 서로에게 득, 79년생 오늘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며 견디자, 91년생 내가 하는 생각은 상대도 할 수 있으니,



원숭이

44년생 진실이라고 우기는 것은 하나를 알고 하나를 모르는 일일수도, 56년생 꽃만 피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68년생 아름다운 여자는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데, 80년생 오후5시부터 운전주의, 92년생 사랑은 허망하기도하다,



닭

45년생 하나뿐인 인생을 건강하게, 57년생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기마련이니, 69년생 다정도 병이니 지나친 간섭은 삼가라, 81년생 멀리서 온 친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93년생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해보라 꿈은 이루어진다,



개

46년생 친구간의 우정이 남아있어 모임에 간다, 58년생 행동에도 기증전결이 있어야, 70년생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 것과 같이 보람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말도록, 82년생 피곤하니 충전이 필요, 94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미팅도 부담이,



돼지

47년생 황혼이혼은 지옥행이니 기술을 배우면서 마음을 진정시켜보자, 59년생 순조로운 하루, 71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는 당연, 83년생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 95년생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진다는 기우에서 벗어나야발전,

김상회의四季

눈상



상학相學에서 ‘눈은 입만큼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잘 비유된 말 같다. 눈이 큰 사람은 소리도 큰 편인데 성량聲量의 대소와 눈의 크기는 대체로 일치한다. 눈은 마음의 창이고 눈이 큰사람에 약인이 없다고 하는데 비교적 여성이 그렇다. 성격은 양성陽性으로 남녀관계에서도 곤란한 정사情事도 무의식중에 얘기하는데 마음도 개방적開放的이므로 비밀이 없음이다, 눈이 작은 사람은 진지한 사업에 열중하는 성향이 있고 세상에 뜻있는 일을 하고자 애쓴다. 여자가 비슷한 정도의 미인이라면 눈의 크기를 확인하여 유혹하면 성공률이 높다. 눈과 눈 사이에 또 하나의 눈이 들어갈 정도가 성인成人의 표준으로 보고 눈 사이가 넓으면 조속하다. 여자 쪽에서 눈이 큰 청년을 비교하면 만사에 화려한 형이므로 운명을 잘 개척해 나가고 선물도 잘 보내온다. 다만 큰 눈에도 힘찬 눈과 탁한 눈이 있다. 힘찬 눈을 가진 사람은 사물의 구상이 크고 비범한 수완가라서 큰 사업을 이룩할 기우氣宇를 지닌 인물이다.

작은 편은 성실하지만 가라앉은 성격이라 사람을 사귀는 것도 돈벌이도 연애의 기교도 재빨리 성과를 거두는 노릇은 못하고 오히려 그런 행동을 경멸한다. 비만형이면서 눈이 가늘고 작은 사람은 부드럽고 온순한 인품으로 보이기 쉬운데 실은 인색하고 겁쟁이며 마음이 약하다. 이런 경우 말년이 불운하다. 작더라도 힘차게 가늘거나 긴 눈은 사교력이 많고 자비스러운 사람으로 자선사업을 하기도 한다. 누굴 선택할까는 각자의 몫이다. 굳이 적용시킬 말은 아니지만 사팔뜨기는 위로 치켜보는 눈과 아래로 내끼려 보는 눈을 구별하고 위로 보는 것은 그다지 흉하지 않으나 아래로 보는 눈은 운명적으로 가정불화의 흉상으로 여가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5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6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8
4	9	1			5	2
				2		4
	6	7		9		
			7		3	
				1		5 9
	4		8			
	7		5			2 3 8
	5					

	5				4	
	1	3		2		7 6
6				1		9
	3					
		7		5	2	
						6
	7			2		
2	8		6		1	3
		6				2

정답

4	9	1	8	6	2	5	8
8	8	2	9	7	5	6	1
6	5	1	2	2	8	8	7
2	6	5	8	1	9	7	8
2	9	7	8	5	2	8	1
8	1	8	7	6	2	2	9
5	7	6	2	2	1	9	8
9	2	2	9	8	8	1	6
1	8	8	6	9	7	9	2

6	2	5	8	2	9	7	1
2	8	1	7	6	9	5	8
8	7	9	8	2	1	6	2
1	9	2	8	8	7	2	6
8	8	2	1	5	6	2	9
7	5	6	9	2	2	1	8
5	6	8	2	1	8	7	2
9	2	8	2	7	5	8	1
2	1	7	6	9	8	8	5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단지배치 계획안.

/뉴시스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연내 정비계획 결정 완료 전망
50층 내외, 2050세대로 정비

서울시는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1978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고 12층, 13개동으로 구성된 1572세대의 주거 단지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신반포2차 아파트는 50층 내외 2050세대로 거듭난다. 정비 사업 면적은 11만

7789.1㎡다.

시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과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30m 이상의 통경축을 열고 공공보행통로 변으로 디자인 특화동을 배치했다. 또 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허용했다.

지역 주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이 저조한 대상지 북측 녹지를 정비구역에 편입시켜 산책 숲길로 재조성하기로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에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열차 추가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 나서

서울시-교통공사, 2·3·5호선 증회 내년 9호선 신규 전동차 8편성 추가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하철 혼잡도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혼잡도가 높은 노선에 열차를 추가하고, 증회 운행에 나서기로 했다. 내달 3일부터 지하철 2·3·5호선의 운영을 4회(오전·오후 각 2회)씩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9호선의 경우 내년 초 신규 전동차 8편성을 추가로 도입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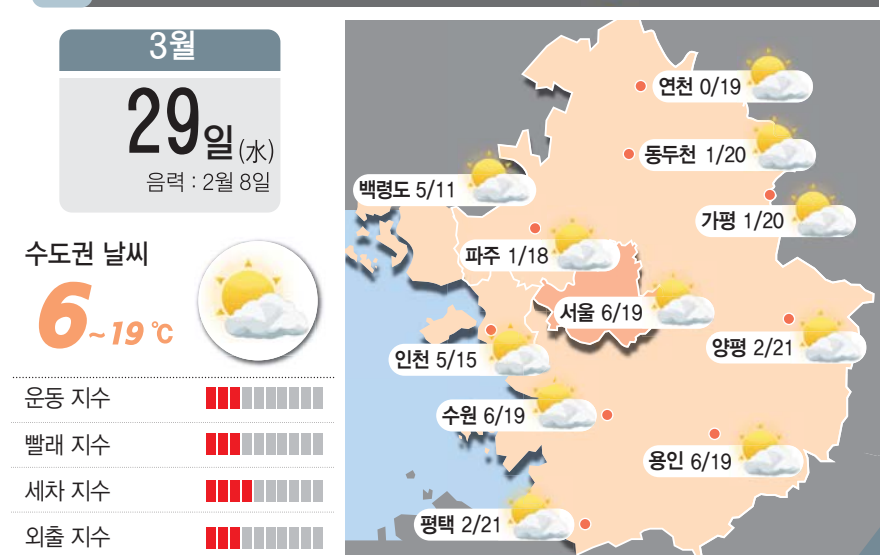
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하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역사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승강장, 계단, 연결통로 등 주요 밀집구간 내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전동차 증차와 이동 통로 확장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철 혼잡도의 근본적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경기도, AI 등 새싹기업 25곳 선정 을 사업화 자금 3600만원 씩 지원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추진
경영컨설팅·투자유치 교육 등
희망 창업가 내달 14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2023년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추진, 자율주행·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예비·초기 새싹 기업(스타트업)을 키워 창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우수한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도내 예비·초기 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둔 경기도의 대표 창업 지원사업이다.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00여 명의 기술 분야 예비·초기 창업가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새싹 기업 25개사를 선정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공공테크노밸리 내 공공기관의 우수 역량을



/경기도

활용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싹 기업 육성과 사업화 자금 기업당 3600만 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새싹 기업의 역량개발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개방형 창업 공간인 ‘창업베이시캠프’에서 전문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경영컨설팅, 투자유치 교육, 기업홍보(IR) 사업계획서 제작, 기업교류(네트워킹) 등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가를 4월 14일까지 모집하며, 도내 기술 기반 창업가 중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초기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융합기술 분야(자율주행, 답러닝/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반 인공지능, 클라우드, 모바일, 가상·증강현실, 로봇 융합 등 4차산업 또는 융합기술) ▲나노기술 분야(반도체, 부품 및 장비, 소재, 스마트센서, 전자소자/광소자 및 모듈,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부품, 태양전지 등 관련 나노기술) ▲바이오산업 분야(신약 개발, 바이오의약품, 의약 재창출, 식의약 소재 개발, 제제기술 개발, 체외진단 의료기기, 향장 소재 개발 등 바이오산업) ▲기타 분야(위 3개 분야 외 기술창업)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첨단기술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공공테크노밸리 내 공공기관이 협업해 만든 특화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며 “첨단기술 분야 창업 지원에 베이시캠프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명동 월평균 임대료 1232만원… 서울 주요상권의 3배

서울시, 1층 점포 1만2500곳 조사
㎡당 통상임대료 평균 6만9500원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월평균 임대료는 약 40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8일 명동거리, 종로3가 등 관내 140개 주요 상권 내 점포 1만2500곳(1층 위주)을 대상으로 벌인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당 통상임대료(월세+보증금 월세전환액+공용관리비)는 평균 6만9500원으로 전년 대비 6.6% 상승했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은 58.7㎡이었다. 시는 ㎡당 통상임대료에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을 곱해 월평균 임

대료를 408만원으로 계산했다. ㎡당 보증금은 99만4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을 적용하면 5835만원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동거리였다. 명동거리의 ㎡당 월 21만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 임대료가 1232만원이나 됐다.

강남역(14만3600원), 여의도역(10만9700원), 압구정 로데오(10만3400원), 선릉역(10만1700원)도 ㎡당 월 10만원을 넘어서면서 평균을 웃돌았다.

매출액은 ㎡당 37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상권 중 ‘강남 가로수길’이 61만6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을지로3가(57만4000원), 고덕역(56만원), 신림역(53만8000원)이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로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2021년 30만7000원에 비해 전반적인 매출이 21.1% 늘었다”면서 “이에 임대료 또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서울 주요상권 점포당 평균 초기투자비는 약 1억1498만원으로 파악됐다. 초기투자비는 보증금과 권리금, 시설투자비로 구분된다. 권리금(4342만원), 보증금(4020만원), 시설투자비(3137만원)순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많았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해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고액·상승 체납자 1540명 신규명단 공개

공개자 체납액 총 1023억 달해

서울시는 고액·상승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한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승체납자들이다.

신규 명단공개자(예정) 1540명의 체납액은 1023억원이다. 기존 명단공개자 1만4162명이 밀린 세금은 1조6506억원에 달한다. 기존과 신규 명단공개자를 합쳐 총 1만5702명이 1조7529억원을 체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명단공개 신규대상자에게는 등기로 사전 통지서가 발송된다. 시는 올해 9월 말까지 소명 기회를 준다. 이 기간

안에 공개 제외 사유를 밝히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한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안 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 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가택 수색, 공매 등의 체납 처분에도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디즈니, 구조조정 착수…해고 대상자 통보 시작 /사진 뉴시스
▲ 골드만삭스 “AI로 생산성 끌어올린 다…세계경제 연 7% 성장”

▲ 일본산 광물도 IRA 혜택…미·일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 체결
▲ 유럽은행들 SVB·CS 사태 이전부터 예금 빠져나감



▲ 마잉주 전 대만 총통 방중…국공내전 종료 74년 만에
▲ 반정부 시위 20만명…한발 물러난 네타냐후 “사법개혁 입법 연기” /사진 뉴시스



[라이프]
잇단 가격인상에
명품 중고거래시장
활황
L1



Life

[바이오]
셀트리온
해외시장 승부
3사 합병도 추진
L2



조선시대 주요 뱃길, 자연-문화 어우러진 휴식공간으로

♥ 되살아나는 서울 18 송파구 '송파나루공원'

서울 송파구에는 석촌호수를 품은 송파나루공원이 있다. 공원은 조선 시대 한성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이어지는 주요 뱃길 중 하나인 '송파나루터'가 있던 자리에 만들어졌다.

과거 잠실 한강 부근에는 토사가 쌓여 형성된 부리도라는 섬이 존재했다. 이 섬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신천강이, 남쪽에는 송파강이 흘렀다. 1971년 4월 부리도를 육지화하는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시작됐다. 이를 통해 섬의 북쪽 물길은 넓어졌고, 남쪽 물길은 사라졌다. 이때 폐쇄된 남쪽 물길이 현재의 석촌호수로 남았다.

송파구는 "1970년대엔 볼품없던 호수였으나, 1981년 수변 인근에 녹지를 만들고 산책로와 쉼터 등을 설치해 공원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됐다"며 "2001년부터는 석촌호수를 명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해 공원 정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송파나루공원은 1981년 11월 26일 개원했다. 담수량은 63만6000t이며, 총 면적은 28만5757㎡, 수심은 4~5m, 호수 둘레는 2.5km다.



송파나루공원 내 석촌호수 서호쪽에서 바라본 매직아일랜드.

/김현정 기자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

지난 18일 송파나루공원을 찾았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 2번 출구로 나와 8·9호선 석촌역 방향으로 293m(5분)를 걸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송파나루공원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의 눈'처럼 생긴 잠실롯데월드타워 앞에 주먹도끼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석촌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의 한가운데를 송파대로가 가로지른다. 공원 오른쪽이 동호, 왼쪽이 서호다.

입구에는 나무로 지은 단층짜리 건물인 '송파관광정보센터'가 위치했다. 정보(information)의 영문 표기 앞글자인 'i'를 형상화한 흰색 조형물이 지붕 위에 붙어 있어 눈에 잘 띈다. 동호쪽에는 센터에서부터 시작해 시계방향으로 수변무대, 공원관리사무소, 장미원, 송호정, 관람석이 들어섰다. 서호쪽에는 서울삼전도비에서부터 출발해 반시계 방향으로 매직아일랜드, 놀이마당, 매화원, 잔디마당 등이 마련돼 있다.

센터 앞에는 송파구에서 만든 하트 모양의 조형물 '사랑의 우체통'이 설치됐다. 센터에서 우편엽서를 사서 편지를 작성해 우체통에 넣으면 4, 8, 12월 초에 보내준다고 한다. 빨간색 우체통을 지나 동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공원은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었다. 호수의 물결이 바람에 밀려 세차게 흘렀다.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멀미가 날 정

조선시대 뱃길 '송파나루터' 자리 1981년, 녹지·산책로 등 공원 조성 공원 내 벽화길 '석촌호수 꿈별 길' 수변 인근 수생식물·야생화 볼거리

도로 물살이 빨랐다.

황금빛 윤슬과 함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석촌호수의 명물 '거위떼'였다. 거위들은 물가에 앉아 부리로 깃털을 고르거나 호수 위를 느릿느릿 헤엄쳤다. 아이들은 놀란 듯 눈을 휘둥그레 뜨고 거위떼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금강한 게 많은 어른들은 "저게 오리야? 거위야? 백조야?"라고 일행에게 질문하며 고개를 가웃거렸다.

호수의 경계에는 뱃나무들이 잔뜩 심어져 있었다. 나무에 걸린 황동 팻말에는 '수종: 왕벚나무, 식재일: 2007년 10월 18일, 현수자: 문정1동 정락신용협동조합' 등의 문구가 적혀 이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석촌호수벚꽃길이 주민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호수 위 '미니 디즈니랜드'

동호 구경을 다 마치고 서호로 이동하기 위해 잠실호수교로 이동했다. 다리 밑에는 송파구청이 롯데월드와 함께 조성한 벽화길인 '석촌호수 꿈별 길'이 조성돼 있었다. 구는 '꿈, 피어나는 길'에는 어린이들의 꿈이 가득한 세상을 꽃과 테마파크로 그렸고, '별 반짝이는

길'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송파구를 별과 관내 명소들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알록달록한 색의 무지개와 별, 구름, 꽃 그림이 벽면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호수교 한켠에서는 피아노 연주회가 열렸다. 검은색 마스크를 낀 젊은 청년은 '호수 위의 피아노'에서 쇼팽의 에튀드 추격,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3악장,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와 같이 빠른 피아노곡을 연주하며 사람들을 흠뻑했다.

다리를 지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축소해 놓은 듯한 놀이동산이 하나 나온다. 해성특급, 번지드롭, 자이로스윙, 아트란티스 등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탄 사람들은 "오아아아아!"하고 즐거운 비명을 질러댔다.

가족과 초승달처럼 생긴 보트를 타며 추억을 남기는 방문객들도 눈에 띄었다. 온종일 놀이기구를 타느라 지친 아 빠는 초승달 위에서 새근새근 잠들었고, 옆에 있던 아이는 심심했는지 호수 둘레길을 걷고 있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구는 "호수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수변 인근에 수생식물과 야생화를 심어 생태 호안으로 만들었다"면서 "수질 개선과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녹지를 관리해온 결과 송파나루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거듭났다"고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① 송파구청과 롯데월드가 조성한 벽화길 '석촌호수 꿈별 길'
② 공원 내 설치된 하트모양의 조형물 '사랑의 우체통'
③ 석촌호수에서 문보트를 타고 있는 시민들.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바이든 워싱턴 만찬에 블랙핑크 오나... YG "검토 중" /사진 뉴시스
▲김희애·설경구,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 출연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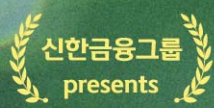
▲'화제성' 여전...오픈베타 종료한 '디아블로4'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예산 10억원 증액 추진 논란



▲정찬헌 키움 히어로즈에 잔류...2년 계약 /사진 뉴시스
▲부산서 16년 만에 프로야구 올스타전...KBO 수비상 신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영화 같지만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숨을 곳도 도움을 청할 어른도 없이 홀로 악몽 같은 날들을 지내온 10살 현지(가명)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마음 속 그늘을 걷어내고
함박웃음을 짓기 시작한 현지의 꿈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꽃들이 예쁜들, 너보다 예쁠거야

이제는 행복해진 아이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선한 세상 이야기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사업】

신한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아동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학대피해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대 후유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 운영과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피해아동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실제 모델은
사용하지 않은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